

## 소식 · 안내

- 40 월간브리핑
- 44 한우심사기술교육 참가신청 안내
- 47 이슈 상식  
PLS 제도란?  
HACCP

## 특집

- 50 축산물 PLS 제도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김재민 편집장(팜인사이트)
- 56 2022 국제곡물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  
홍성수 부장(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 60 국내외산 조사료 현실과 전망  
김종영 원장(한국조사료연구원장)

## 기획

- 66 전국한우협회 창립 23주년 '2022한우인전국대회' 성료
- 72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한우숯불구이축제
- 76 울산ICT시연회 첨단기술로 사육하는 한우  
한우종합관리 플랫폼
- 78 대한한우 이 세상에 나쁜 소는 없다  
-사랑농장 조선희 대표

## 사양 · 컨설팅

- 85 컨설팅  
컨설팅을 통한 미경산우 비육 프로그램의 확립  
지엠디컨설팅
- 88 원포인트레슨 전북한우조합  
등록우 경매시장을 가다  
이종현 전 사무국장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94 수익칼럼  
한우 키포인트 이것만은 꼭!  
소앤소 김재경 원장

## 연재 · 정보

- 98 소가사는세상
- 100 우리한우판매점 옥천향수한우판매타운
- 106 생활 법률  
주위토지통행권  
우양태 변호사
- 108 10월 한우동향분석  
한우정책연구소
- 116 10월 한우정보 주요뉴스



## 「선제적 수급조절」 「철저한 차단방역」

노란불 다음 신호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생각은 그만, 이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 우리가 스스로 앞장 섭시다.



## 내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 모두 동참하는 한우 선제적 수급조절·철저한 차단방역

한우 선제적 수급조절 및 한우K-방역에 참여해주신 전국의 한우농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 월간브리핑

2022년 10월 협회 주요활동



## 10.6 (목) ○ 한우자조금 과제심의위원회

- 장소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2층 대회의실
- 내용: 2023년 지정연구과제 수요조사 접수 제안서에 대한 추진여부 결정

## 10.7 (금) ○ 창립23주년 2022한우인전국대회

- 장소 : 괴산군 괴산종합운동장
- 내용
  - 전국 한우농가 대규모 '한우 수급조절 및 방역 결의대회' 추진
  - 전국한우협회 제23주년 창립기념식 병행 진행(시상 등)
  - 수급조절 및 방역 결의 캠페인, 기자재 전시, 한우 홍보관 운영

## 10.7 (금) ○ 경상북도 한우 경진대회



## 10.12(수) ○ 제 2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경매행사 및 입상자 발표

- 출품규모
  - 제25회 대회 : 292두(혈통등록 거세우), 292개 농가(단체)
- 출하·도축·경매행사
  - 일자 : 2022. 10. 10(월) ~ 2(수)
  - 장소 : 농협경제지주 음성축산물 공판장
- 시상식
  - 일자 : 2022. 11. 3(목)
  - 장소 : 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홀



## ● 역대 대회추진 현황

회(연도)	출품두수(두)	출품농가(농가)	출하월령(개월)	출하체중(kg)	1등급출현율(%)	비고(훈격)
1('93)	36	12	-	613	30.5	한국종축개량협회장상
2('95)	117	37	23.5	556	74.4	"
3('97)	168	53	23.6	559	64.9	"
4('99)	210	70	25.0	582	72.9	농림부장관상
5('01)	264	88	25.8	600	68.9	"
6('03)	393	131	27.1	647	78.6	국무총리상
7('04)	186	83	27.4	642	80.0	"
8('05)	210	105	28.1	665	82.9	"
9('06)	194	97	29.1	682	92.3	"
10('07)	262	131	28.6	679	93.5	"
11('08)	248	124	29.3	687	92.3	"
12('09)	204	102	29.0	710	97.1	대통령상
13('10)	206	103	30.3	702	86.9	"
14('11)	168	84	30.2	725	97.0	"
15('12)	197	99	29.6	728	98.5	"
16('13)	260	130	30.8	753	98.1	"
17('14)	124	124	30.1	750	99.1	"
18('15)	183	183	30.6	770	98.9	"
19('16)	198	198	30.1	789	100.0	"
20('17)	220	222	29.7	767	99.6	"
21('18)	236	236	29.6	797	100.0	"
22('19)	230	230	29.7	795	99.6	"
23('20)	255	255	29.3	806	98.8	"
24('21)	240	240	29.3	824	97.9	"
25('22)	292(신청)	-	-	-	-	"

※ 한국종축개량협회의 한우고기평가회를 시초로 '95년부터 전국한우능력평가 협의회를구성하여 격년제로 개최하였으며, '03년 제6회 대회부터 매년 개최(주관단체: 1회('93) 한국종축개량협회 → 5회('01) 한국종축개량협회 · 전국한우협회 공동)



10.13(목) ○ **울산 ICT시연회**

-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및 이순걸 울주군수 등 참석



10.18(화)

○ **축산농가 수해 피해 성금 전달식**

- 우리협회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내 축산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운영중
- 지난 서울 용산집회날 모금된 수해피해 모금액 500만원 전달 의결
- 수해피해 모금액 전달식
  - 일시 : 10월 18일(화) 11시
  - 장소 :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실
  - 참석자 : 김삼주 비대위원장(본회 회장),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부회장(대한한돈협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직무대행



○ **저능력 미경산우비육지원사업 및 암소수급 조절 회의 (농식품부)**

10.19(수)

○ **SBS생방송 투데이 회장님 인터뷰**

- 11월 1일 대한민국이한우먹는날 소개 영상 촬영



○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최종 운영위원회**

10.21(금)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발대식**

- 식약처 주관 대체식품의 합리적 표시방안 마련을 위한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 구성

10.25(화)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업무 협약식**

- 상생발전 협약식
  - 한우 소비촉진 및 판매를 위해 김삼주 회장님과 이승제 센터장님 간 상호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 진행

- 해외 박람회 및 바이어 대회, 한우 수출관련 학술연구 등 제휴행사를 통한 한우 우수성 홍보 및 수출·판매 활성화 모색
- 한우 수출 관련 연구 및 행사 등을 (사)전국한우협회와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가 체계화된 공동 관리로 한우에 대한 대외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한우수출연구사업단 연구 성과 및 향후 계획 안내
  -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한우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해온 연구 성과를 (사)전국한우협회와 공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한우 수출을 위한 한우 수출 관련 업무 및 연구 등 한우산업과 수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산업적·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10.26(수)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면담**

- '23년 사료 및 조사료 예산확대 추진계획 설명
  - 논 활용 하계 조사료 재배 공익직불금 예산 반영
  - 유희 국·공유지 활용 조사료 재배 예산 반영
  -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 예산 확대
  - 농가사료구매자금 예산 확대 및 금리인하
  -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 **제3차 한우자조금 예산심의 소위원회 (중식 12시)**

- 2023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을 위한 협의체

10.28(금)

○ **특별사료 구매자금 지원에 따른 농가 지원 효과 점검 등 회의**

- 농식품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관련 제도개선 및 의견수렴 회의
- 회의안건
  -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에 따른 사료비 절감 효과 및 농가 의견
    - \* 금리인하(1.8%→1.0%)
    -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일시상환 →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및 특별사료구매자금 (11,450억원) 추가 지원
  -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연내 대한 완료 협조 요청
  - 내년도 사료구매자금 정부 예산안 설명
  - 기타 의견 등

10.29(토)

○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기념식 (10.29-10.31)**

- 서울 이태원 참사로 행사 중단(10.30)





한우개량 담당자 및  
농가 대상

# 한우심사기술교육 참가신청 안내



한우개량 담당자(공무원, 지역축협, 한우조합·회, 인공수정사) 및 농가를 대상으로 개량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한우심사기술교육을 2박 3일간 실시합니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시는 농가께서는 양 협회 홈페이지(한우협회 및 종개협) 에서 한우심사기술교육 참가신청서를 받아 11월 30일까지 신청바랍니다.

## 세부추진계획

【 교육명 】 2022년도 한우심사기술교육

【 교육대상 】 한우개량담당자(공무원, 지역축협, 한우조합(회), 인공수정사) 및 한우농가

【 교육기간 】 2022.12.7~12.14(2박3일, 2회) ※ 교육 참가신청인원에 따라 1, 2회차 시기를 조정하여 추후 확정·통보할 예정임

- 1회차 : 2022.12. 7(수)~12. 9(금)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역시

- 2회차 : 2022.12.12(월)~12.14(수)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제주

## 【 교육장소 】

- 이론교육 : 강진완도축협 본점(전남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 40)

- 실습교육 : 강진완도축협 가축시장(전남 강진군 군동면 청자로 75-21)

【 담당자 】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 이경수과장(02-588-9301, 내선 121)

Fax : 02-522-0171, E-mail : kslee@aiak.or.kr

## 목적

- 한우심사의 올바른 이해로 개량사업 활성화 유도
- 한우개량의 정책방향과 정보제공을 통한 개량의 효율성 제고
- 한우개량 담당자와 유대강화로 원활한 업무 추진

## 기본방향

- 이론과 현장실습을 통한 현장실무교육 강화
- 개량사업의 중요성 및 정보제공

## 교육일정표

- 1차 교육 일정 : 12월 7일(수) ~ 12월 9일(금)

- 2차 교육 일정 : 12월 12일(월) ~ 12월 14일(수)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07:00~08:00		조 식	조식
08:00~09:00		해외개량기술정보(Ⅰ)(동영상)	해외개량기술정보(Ⅱ)(동영상)
09:00~10:00	접수 및 개회	한우유전체개량에 관하여	한우등록실무요령 및 이해
10:00~11:00	한우산업현황 및 개량성과		토의 및 설문조사
한우사양 및 질병관리			
11:00~12:00	질의응답 및 종합평가		
12:00~13:00	중식	중식	
13:00~14:00	한우선형심사의이해		
14:00~15:00			
15:00~16:00	선형심사현장실습	선형심사현장실습	
16:00~17:00			
17:00~18:00			
18:00~19:00	한우개량사업현안토의	실기평가	
19:00~20:00	석 식	석 식	
20:00~	자유시간및취침	자유시간및취침	

## ※ 이론 교육장

강진완도축협 본점 2층 회의실

주소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 40

전화 : 061)433-1514

☞ 본점 이전으로 네비게이션 입력 시 주소 확인 필수

## ※ 실습 교육장

강진완도축협 가축시장

주소 : 전남 강진군 군동면 청자로 75-21

☞ 이론 교육 후 실습장 이동





# 전국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 농가가 원하는 적기 출하
- 경매 상장 수수료 無
- 운송비 절감
- 하자육 발생시 농가 손실 방지제도 운영



• 한 채(8두 기준) 출하, 100만원 이상 이득 ⇒ **농가수익개선**

전국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유통망은 부산물 제값받기와 적기출하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한우협회 전용 도축유통망입니다.  
경매 상장수수료가 없고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영안정에 유익합니다.

### ◆출하 신청방법 (☎ 02-525-1053)

- 담당 : 유통사업국 박호경 대리(내선 207)
- 시기 : 출하 계획 14일~30일전 협회로 신청
- 접수 : 중앙회 담당직원 연락 또는 시군지부 접수
- 팩스 : 02-525-1054



### ◆정산기준

구분	거세우	암소	비고
출하규격 (지육중량)	360kg이상 540kg이하	30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300kg이상 440kg 이하	
가격적용 기준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화, 수, 목, 금 평균가		
부산물	두 · 내장 · 우족은 농협 음성공판장 가격 적용		우피는 당해 도축장 가격에 따름
하자육 처리	출하대금의 0.1%를 적립하여 하자육 발생시 사용		하자육 금액이 kg당 1,000원 이상으로 발생시 일부 자부담 발생
기타	초과우 및 미만우 지급비율 ⇒ 중앙회 문의		



## PLS 제도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미 농약잔류 기준은 오래전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워낙 많은 농약이 만들어져 적용되다 보니 농산물 품목마다  
잔류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기준이 없는 농산물은 CODEX 기준,  
유사 농산물의 잔류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잔류 기준이 없으면  
사실상 불검출되어야 하며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부적합 농산물로 분류된다.  
축산물은 2024년 1월 1일부터 동물의약품 중심으로 시행된다.



## HACCP

해썹은 생산-제조-유통의 전 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이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 관리지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해썹제도는  
식품, 축산물, 사료 분야에서  
각각 시작되어  
식품은 식약청, 축산물과  
사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리하여 오다가  
현재 식약처가  
통합 관리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대한한우사료

- 한우 사료 품질과 가격의 표준점 제시
- 농가 주도 생산·원가공개·매달 가격 연동 시행

대한한우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

비육 구분	어린송아지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비고
급여사료명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생후 월령	2~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출하월령 28개월 이상
체중 (kg)	150	200	220	240	260	290	320	350	380	420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50	670	690	710	730	750	출하체중 750kg 이상
일당증체량(kg)	0.8	0.8 - 1.0								1.0 - 1.2								0.6 - 0.8						0.84 kg
	건초	자 유 채 식								2.0	2.0	1.0												
	벼짚									1.0	1.0	1.0	2.0	2.0	1.5	1.5	1.5	1.0	1.0	1.0	1.0	1.0	1.0	
배합사료 급여량		3.0	3.5	4.0	4.5	5.0	5.5	6.0	7.0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5	9.0	9.0	8.5	8.0	

대한한우 번식우 사양 프로그램

사 육 구 분		번식우육성(반추위, 소화기관 완성기)							임신우													포유우	
월 령 (개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경산우										포유중
체 중 (kg)		130 ~150	150 ~170	170 ~190	190 ~210	210 ~230	230 ~250	250 ~265	270 ~285	290 ~305	310 ~325	330 ~345	350 ~365	370 ~385	390 ~405	410 ~425	430 ~445	450 ~465	470 ~485	490 ~505	510 ~515	520 ~535	
일당증체량 (kg)		0.6 ~ 0.8							0.4 ~ 0.6													0.6	
1일사료 급여량 (kg)	구 분	번식용 종송아지							임신우													임신우	
	섭취 량	2 ~ 3 kg							3 ~ 4 kg													4 kg	
	배합 조사료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증감 요인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 10%정도 증가시켜 줄 것 임신 7개월부터 10% 증가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대한한우  
어린송아지사료  
2~6개월  
25kg

대한한우협회

대한한우 어린송아지  
적용범위 생후2개월~6개월

- 미아리산과 탄닌 함유에 의한 고창증과 설사 예방
- 천연물질에 의한 항병력 강화
- 반추미생물과 효모제 강화
- 식이섬유와 비타민/미네랄 강화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
- 대용유함유에 의한 빠른 입몰이기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에너지	20.0	2.5	20.0
조화분	칼슘	인	TDN
	10.0	0.9	70.0

고품질  
대한한우  
번식  
25kg

대한한우협회

대한한우 번식우  
적용범위 5개월~임신우

- 발정과 수태율 최적화를 위한 충분한 영양소 공급
- 번식전용 비타민/미네랄 설계
- 황토급여에 의한 미네랄 보충
-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번식우	14.0	2.0	15.0
조화분	칼슘	인	TDN
	15.0	0.8	68.0

고품질  
대한한우  
육성  
25kg

대한한우협회

대한한우 육성기  
적용범위 생후7개월~14개월

-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골격과 내장의 발달을 촉진
- 적정에너지 공급
- 섬유소 공급에 의한 반추위와 소화기관 안정화
- 높은 수준의 비타민과 균형 있는 미네랄 공급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육성기	15.0	2.5	20.0
조화분	칼슘	인	TDN
	15.0	0.7	70.0

고품질  
대한한우  
비육전기  
25kg

대한한우협회

대한한우 비육전기  
적용범위 생후15개월~22개월

- 반추위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 최대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 향상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 비육효과를 최대한 발현시키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필요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비육전기	13.0	2.5	20.0
조화분	칼슘	인	TDN
	15.0	0.7	73.0

고품질  
대한한우  
비육후기  
25kg

대한한우협회

대한한우 비육후기  
적용범위 생후 23개월~28개월

- 근육내 지방 발달 극대화로 육질 향상
- 단백질과 에너지의 균형 있는 배합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 고급육 효과를 최대 발현시키기 위하여 TDN을 높여 줌
-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을 향상
- 과비방지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비육후기	12.0	2.5	20.0
조화분	칼슘	인	TDN
	15.0	0.7	75.0

대한한우 사료의 원료구성

옥수수, 루핀후레이크, 대두박, 옥배아박, 채종박, 아자박, 팜박, 소맥피, 단백피, 비타민+미네랄혼합제, 황토, 미생물제, 당밀향+감미제, 번식개선펙제

사료가격 투명화 / 합리적 가격 / 생산비 절감

고품질 한우사료 ‘대한한우’

한우 생산비 중 농가소득을 좌우하는 사료비 비중이 50%이상!

사료가격 결정의 주체는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 매월 1일 환율 및 유가(곡물가) 변동 등에 따라 기준가격 변동

22년 11월 협회전용 사료 ‘대한한우’ 가격 안내

공장출고가 기준(운송비 등 추가비용 반영안된 가격임)

대한한우  
어린송아지사료  
2~6개월  
25kg

대한한우협회

어린송아지  
15,750

고품질  
대한한우  
번식  
25kg

대한한우협회

번식우  
12,150

고품질  
대한한우  
육성  
25kg

대한한우협회

육성  
12,300

고품질  
대한한우  
비육전기  
25kg

대한한우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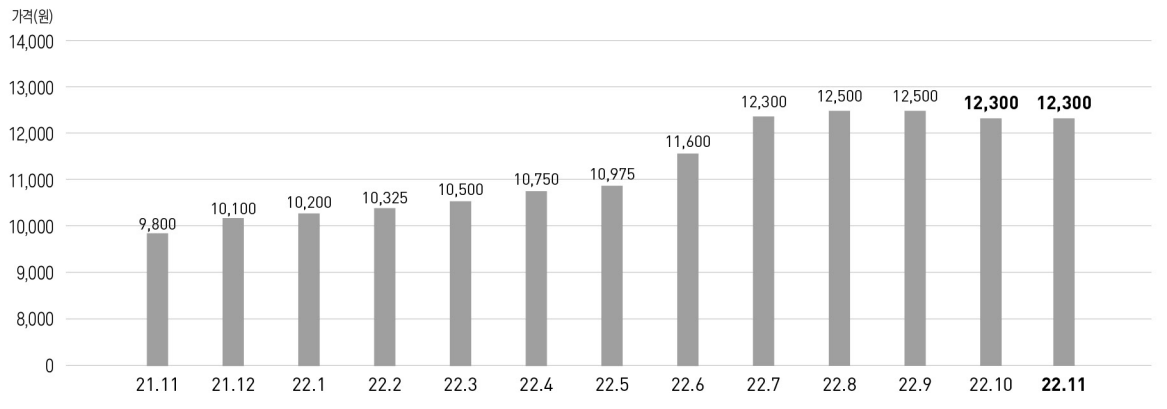
비육전기  
12,500

고품질  
대한한우  
비육후기  
25kg

대한한우협회

비육후기  
12,750

대한한우 사료 가격 변동 추이 (육성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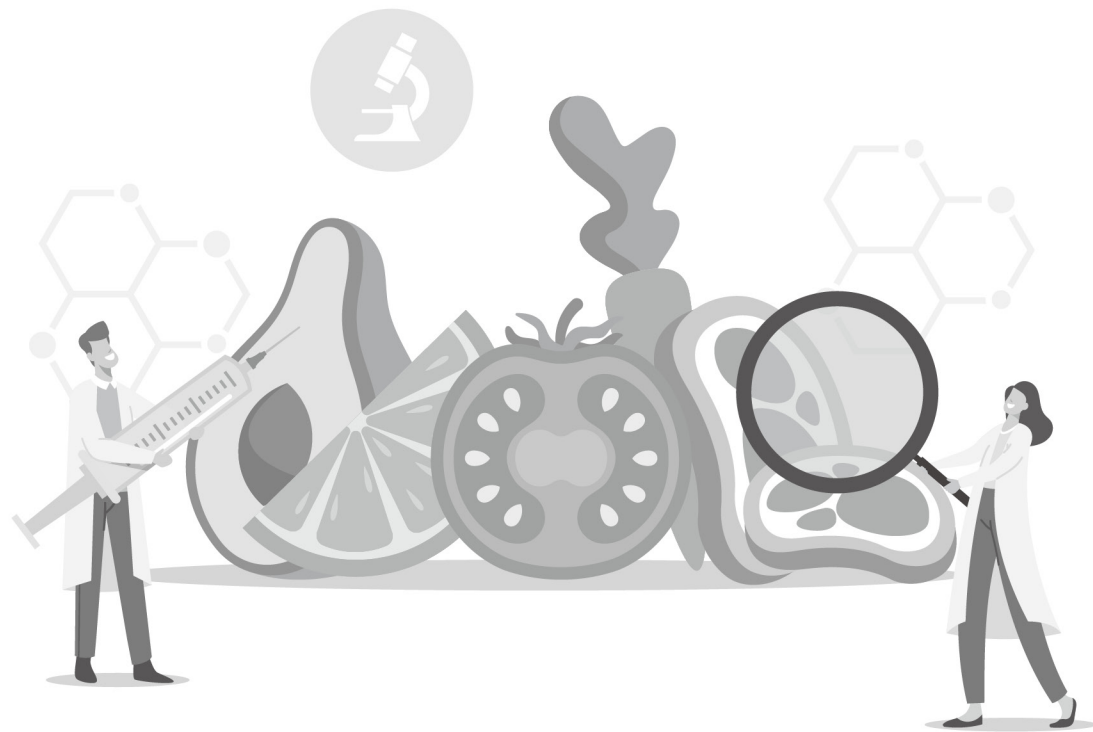


협회전용사료 문의 ☎ 02-525-1053 (내선 208)



# 축산물 PLS 제도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한우 벗짚, 자급조사료 농약잔류문제 최대 관건 될 것



글 김재민 편집장  
(팜인사이트)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PLS)가 2024년 1월 1일 시행된다.

언뜻 보면 2년 정도 남은 것 같지만 올해가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축산물 PLS 제도의 시행까지 1년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계는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2019년 1월 1일 농산물에 먼저 시행되었는데,

쉽게 설명하면 품목마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잔류도 허용되지 않는 제도다.

축산물 PLS 제도는 무엇이고 한우 농가들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 PLS란?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행된 농산물 PLS 제도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본다면 축산업계도 무엇을 대응해야 할지 감이 잡힐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확 후 농산물에 대해 작물별 농약 잔류기준을 설정해 왔다.

하지만 다양한 농약이 개발되고, 전류 기준이 없는 농약 등 화학물질이 늘어나면서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식약처는 2019년 1월 1일부터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PLS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PLS 제도 시행 전에는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더라도 CODEX 기준,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등을 적용했으나 일률기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작물에 잔류기준이 없는 경우 미량 잔류 되었다고 할지라도 위반이 되게 되었다.

## PLS 문제점

PLS 도입 초기에는 등록 농약의 수가 적어서 농가들이 농약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았고 초기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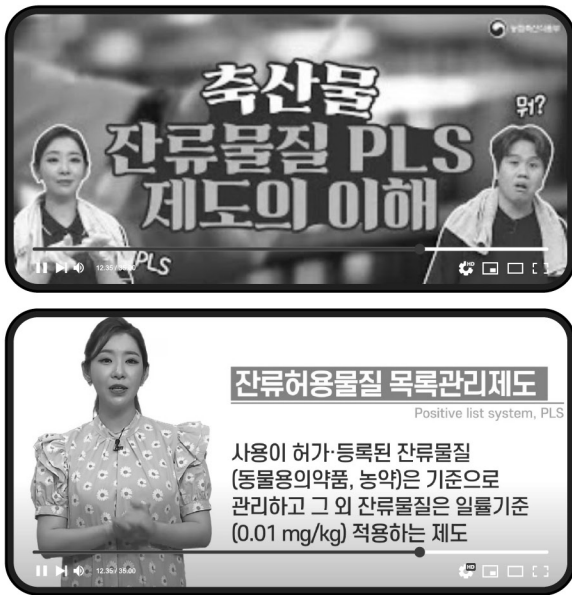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률기준 적용이다.

일률기준 적용이란 실제로 잔류량이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지만, 잔류기준이 없는 농약이 잔류하면 부적합 농산물로 분류되어 수확시기를 늦추거나 수확된 농산물은 폐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깻잎에 B 농약의 잔류기준이 1ppm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상추에는 B 농약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B 농약이 0.5ppm 잔류 되었다고 가정하자. 과거 PLS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깻잎이나 상추나 주로 찜으로 이용되고 있기에 유사한 품목으로 봐서 잔류 위반이 아니지만, PLS 제도하에서는 잔류기준이 상추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률기준인 0.01ppm 이하로 검출될 때만 부적합 판정을 피할 수 있다. 즉 같은 찜으로 소비되는 깻잎에 더 많은 농약이 잔류 되어 있지만 깻잎은 적합, 상추는 부적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농가들의 1인당 평균 농지면적 규모가 1.5ha로 작고, 하나의 밭에 여러 작물을 심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축산물 PLS 홍보영상

농가의 밭과 논이 경계를 맞대고 있어 의도치 않게 다른 작물에 살포한 농약이 흩날려 다른 작물에 잔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같은 문제는 유기농업에서도 자주 발생하는데,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지와 인접해 있는 논이나 밭에서 살포한 농약이 바람을 타고 친환경 인증받은 농지로 넘어와 작물과 토양에 잔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십수 년 동안 유기농 인증을 받아 농사를 지어왔던 농가가 인증취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기도 하였다.

실제로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논을 중심으로 항공방제와 드론 등을 활용한 농약 살포가 확대되고 있으나 흩날림으로 인한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요원한 상황이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소규모 농가의 경우 밭작물을 혼작하거나 돌려짓기하는가 하며 논두렁 등 자투리 농지에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농법은 사실상 퇴출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 축산 PLS

축산분야 PLS는 농업 작물재배 분야 PLS를 한창 준비하던 중에 계란에 농약 잔류문제가 불거지면서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고, 계란 안전성 강화 대책이 만들어지던 2017년 12월 축산물 PLS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제도 도입 준비에 들어갔다.

축산PLS 도입의 결정은 2021년 2월 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

당시 정세균 총리는 선제적으로 위해 요인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PLS)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PLS의 단계적 도입은 1단계로 소·돼지·닭·우유·계란을 대상으로 동물약품 잔류기준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2단계는 나머지 축종의 동물약품 잔류기준과 농약 잔류기준 적용은 2024년 1단계 도입 이후에 도입 시기를 추후 논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

1단계 축산 PLS는 축종별로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하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

는 것이다.

계란 내 농약 잔류 문제로 축산물 PLS를 추진하게 되었지만, 농약 잔류 문제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인지라 1단계 관리 대상 목록에서 농약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는 1차 PLS 시행을 앞두고 농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농가들이 사용하는 동물약품을 조사하였으며, 기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실시해 2023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농산물 PLS 제도 도입 당시 각 품목별 안전성 유효성 평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농가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별로 없어 혼란을 겪었던 것을 감안해 평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축산 PLS 한우 등 축우 대응책 마련 필요

축산 PLS는 농산물 PLS와 비교해 부작용이나 혼란이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물재배업에 비해 품목의 수가 적고 대부분의 동물성의약품이 잔류물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은 전업화, 규모화되면서 소나 돼지, 닭을 함께 사육하는 일은 거의 없고, 1990년대부터 항생제, 항균제 등 동물성의약품 잔류문제가 여러번 사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잔류기준을 설정하여 왔고 보통은 가축에게 먹이거나 주사 등을 통해 투여하기 때문에 교차 오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제는 한우와 젖소와 같은 축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젖소와 한우는 닭이나 돼지와 비교해 사용하는 동물약품의 수도 제한적이고 질병에도 강해서 동물용 의약품은 문제될 것이 없다.

2단계 사업 대상인 농약이 문제다.

이미 계란 내 농약 잔류문제가 불거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들은 축산물에 농약이 잔류될 것이라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념을 깨고 계란에 농약이 잔류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계란 소비가 급감하고 가격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농약 잔류 검사를 통해 계란은 리콜해 폐기처분하고 닭은 도태하는 일이 벌어졌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자연방사 계란의 경우도 수십년 전 뿌려진 DDT가 닭에게 전이되어 계란에 잔류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당시 큰 공포감을 소비자들에 안겨 주었다.

즉 농약의 잔류량이나 안전과 상관없이 계란에 농약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소비자들은 계란 소비를 주저하는 일이 벌어졌다.

소에게 급여되는 조사료 중에는 벼짚이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벼 재배 과정 중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한우고기 내 농약 잔류는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2014년에 경북 성주에서는 농약에 과도하게 오염된 벼짚을 먹고 소가 폐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쇠고기 내 농약 잔류기준이 정해 놓기는 하였지만 2단계 PLS 제도가 시행되면 타 작물재배지에서 살포하는 농약이 비산하여 잔류기준이 없는 농약이 벼짚이나 조사료를 오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 농약비산 문제 축산에 더 큰 위협

한우는 30개월 이상 사육하는 게 일반적인 사육 기간이며, 번식을 하는 암소의 경우는 60개월 이상 사육하는 경우도 많다.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지속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치료 기간에만 사용하고, 체내에 오랫동안 잔류하지 않고 분해되거나 쉽게 배출되는 특성으로 휴약기간만 지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농약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농약은 주로 조사료를 통해 가축 체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조사료는 매일 일정한 양을 지속해서 먹기 때문에 농약에 잔류한 벼짚 등을 장기간 급여할 경우 분해되거나 배출되는 양보다 체내에 축적되는 양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벼에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기준은 설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과수나 채소류 등에 사용되는 농약은 설정될 가능성이 낮고, 주변에 과수나 채소 농가와 경계를 하고 있는 축사나 조사료 포의 경우 농약 비산으로 일부라도 조사료 등이 오염이 되면 0.01ppm/1kg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부적합 축산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다.



앞서 계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들은 계란에 농약이 잔류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잔류 소식에 공포감 마저 느낀 경우가 있다.

조사료를 급여하는 한우나 젖소 등 축우의 경우 농가들이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농약이 잔류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식약처가 일부 한우고기에 잔류 되지 말아야 하는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순간 한우도 계란 못지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대응 방안

축산물 PLS와 관련하여 한우업계의 대응은 2단계 사업 시행 이전에 식약처로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어야 한다.

농산물의 경우 1단계 사업이 2016년 12월 시행되었고 2단계 사업은 2019년 1월 시행되었는데 1단계 사업 이후 2년 후 2단계 사업이 시행된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농약 등을 포함하는 2단계 사업은 2026년 1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약의 경우 1단계 사업에서 제외된 만큼 농약 잔류문제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지만, 축산물 PLS 제도가 계란 농약 잔류 문제 때문인 것을 감안할 때 농약의 포함은 무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한우협회 등 축우 단체는 다음과 같은 제도 보완을 식약처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축산물은 도축단계에서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고 부적합 축산물이 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일반 식품이나 농산물에서 실시하는 소매 판매장에서 샘플을 확보해 하는 검사는 최소화하고 도축 검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도축단계에서의 농약 잔류로 인한 부적합 축산물이 발생했을 경우 유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만큼 적발 실적을 대중에 공표하지 않도록 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잔류량과 상관없이 축산물에 농약이 잔류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소비가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되도록 소에 많은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0.01ppm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농가들은 벼짚이나 수입건초, 이탈리아 안라이그라스나 호밀 같은 동계작물을 주로 조사료로 이용하지만, 이외에도 여러 농산 및 식품 부산물을 사료 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수많은 부산물 중에 예측하지 못한 농약 성분이 잔류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산 및 식품 부산물 사료자원에 대한 농약 잔류물질 검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되는 농약의 경우 필히 한우에 허용기준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약품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축 사료 원료에 농약 등의 성분이 어느 정도 잔류하는지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2022 국제곡물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



글 홍성수 회장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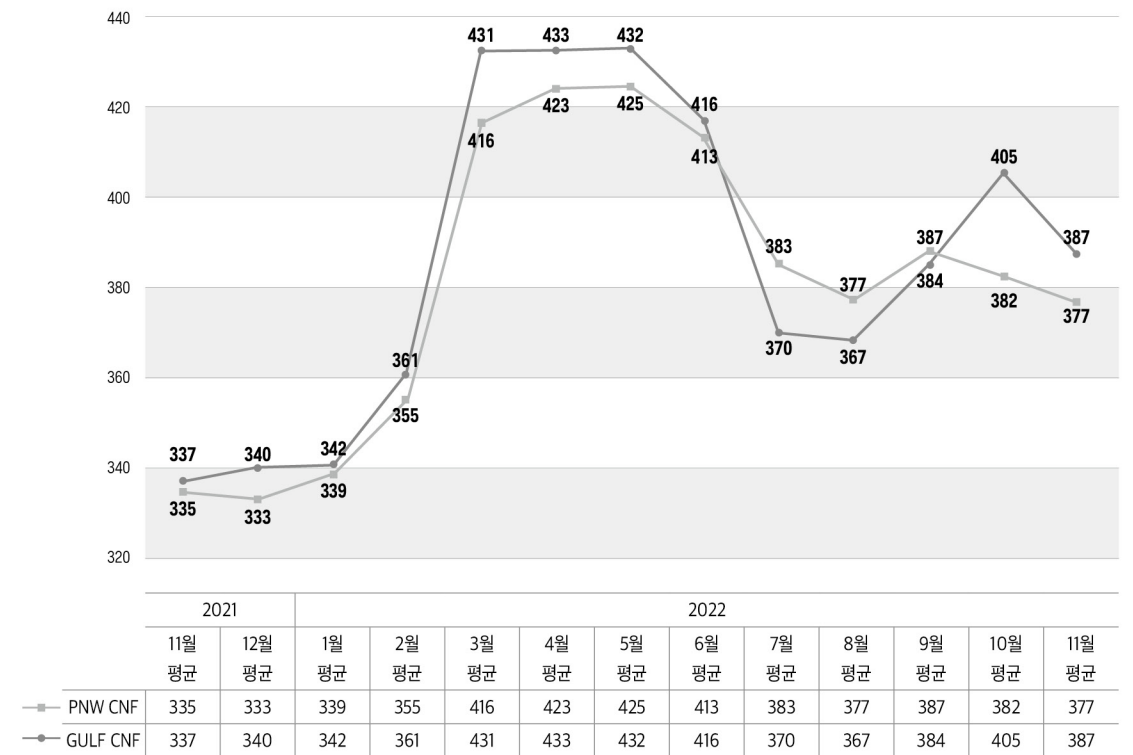
사료곡물 시장에 있어 2022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제3차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사료업계를 강타한 한 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즉, 21세기 들어 처음 발생한 제1차 애그플레이션(2007년)은 중국발 곡물수요 및 해상 물동량 증가에 따른 급등기였고, 2012년 제2차 애그플레이션은 미국에서 반세기 만의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면서 생긴 급등 시기였으며, 2022년 제3차 애그플레이션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증가가 팽배한 상황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퍼팩트 스톰이 국제 원자재 시장을 강타하면서 발생하였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자국산 농산물 수출금지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세계 곡물시장의 수급불안은 곡물가격의 급등을 견인하였다. 즉, 전 세계 옥수수 및 소맥 수출 4위국인 우크라이나와 옥수수 수출 6위국인 러시아의 전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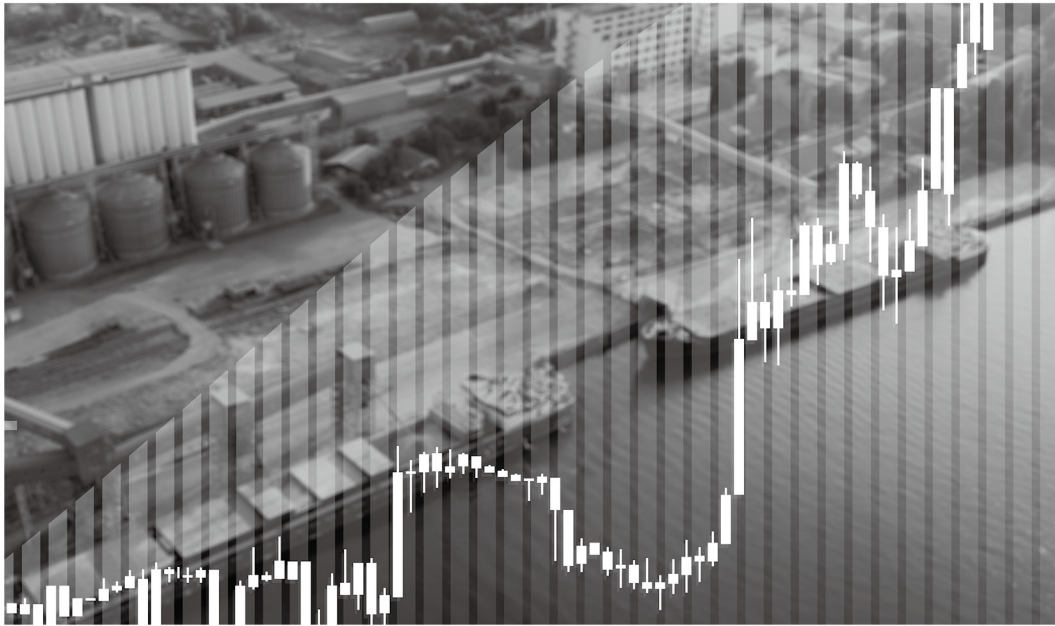
그림 1. 국제 옥수수 가격(해상운임 포함)

(단위 : 달러/톤)



세계 3대 곡물 수출지역의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 흑해지역 최대항구인 오데사항을 비롯하여 출항을 앞둔 곡물선박들의 발이 묶이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곡물교역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인도를 비롯한 곡물수출국들이 소맥을 비롯한 자국산 농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곡물가격의 급등을 불러 일으키면서 전쟁전 톤당 320~350달러였던 사료용 옥수수 가격은 430달러대까지 상승하였다. [그림 1 참조]





### 국제 곡물 수급 불안 및 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사료업계의 대응 노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흑해 항구를 통한 곡물수출이 전면 중단되자 기히 계약을 완료한 우크라이나산 옥수수의 선적이 중단되면서 국내 사료곡물 수급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에 국내 사료곡물 구매단체는 긴급히 남아공산 옥수수를 계약하여 공급중단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원산지를 다변화하는 취지에서 파키스탄산 옥수수를 소량 구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였다. 곡물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는 통상 3~4개월 미리 구매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선물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는 과감히 6개월 이상의 선도구매(계약)를 추진함으로써 가격상승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역부족인 상황에서 국내 사료곡물 구매단체들은 한국사료협회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비한 구매시스템 개선 TF를 구성하여 기존 World-Wide 구매방식(곡물구매 입찰시 수입자가 원산지를 지정하지 않고 수출자가 곡물을 선적할 시점에 원산지를 지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 세계 곡물유통과 수출을 주도하는 곡물메이저와의 가격 교섭력(Bargaining Power) 제고를 통한 사료곡물 가격안정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 불확실성의 시대, 국제 곡물가격의 향후 전망

국제 곡물가격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현재까지 총 4차례의 급등기가 있었는데 곡물가격은 급등기 직후 다시 안정세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단을 지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가격자체가 우상향(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참조]

즉, [그림2]에서 보이는 옥수수 가격(해상운임 제외)은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톤당 100달러대를 유지하였으나 2007년 애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200달러대를 돌파하였고 2012년 급등기에 300달러대를 돌파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300달러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22년 4월에서 6월까지의 급등세 이후에도 하반기들어 곡물가격이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라니냐 등 이상기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달러화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따라 평가절하될 경우 곡물과 같은 상품가격으로의 투기자본 집중 등으로 인해 재상승세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하겠다. 물론 내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최대 곡물수출지역인 북반구의 양호한 기상상황이 이어진다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가격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또한 곡물가격의 상승을 제어할 수도 있다. 따라서 2023년의 국제곡물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확실성의 고착화’라고 하겠다.

[그림 2] 국제 곡물가격의 장기 추이



# 국내외산 조사료 현실과 전망



글 김종영 원장  
(한국조사료연구원장)

반추가축에 반드시 필요한 조사료가 요동을 치면서 가뜰이나 한우가격 인하 및 유대인상이 소폭으로 이루어지면서 대가축(젖소.한우)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우 사육농가는 그 동안 한우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조사료 등 높은 생산비에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지만, 2022년 11월 들어 한우 가격이 급락하면서 사육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시기에 조사료 시장을 점검해 본다.

## 국내산 조사료 현황

국내산 조사료는 동계작물(라이그라스, 청보리, 호밀), 하계작물(옥수수사일리지, 수단사일리지, 사료용피), 그리고 가을벼짚이 주축을 이룬다. 주요 품목별 평균가격을 보면 아래[표 1]과 같다.

주요 6개 품목별 평균 가격 인상폭은 33% 정도이며, 원가상승의 주요 요인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비료 값, 디젤유(면세유) 값, 랩핑용 비닐 값이 주요 이유이고 (30%이상 상승), 기계장비 및 인건비등 제반 비용이 가격폭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특히 가을 벼짚의 경우 올해 중반 동,하계작물의 가격폭등이 주요 원인이 되어 생산자들의 고가 지속가능 예상심리까지 가세되면서 논바닥 벼짚 구매부터 경쟁이 되어 우리나라 벼짚 거래 가격의 출발점이 되는 전북 익산, 군산 지역축협에서 2021년 63,000원/1롤당 매입가가 2022년 85,000원/롤당 상차가격으로 전년대비 약 35% 인상 결정 하면서 일반시장 초도가격이 90,000원/롤당으로 형성 되었다.

국내산 조사료 가격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것은 원가 상승요인도 있지만 날씨에 따른 품질이다.

초가을 소나기가 잦았던 한수이북 일부 지역과 경기도 지역에서 미질향상을 위해 벼짚을 썰어 넣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벼 수매 조건으로 제시하다보니 경기도의 많은 지역이 벼짚을 거두지 못해 가격상승의 요인으로 대두된 것을 제외하고는 2022년 동,하계작물 작업 때도 작업 끝날 무렵까지 날씨가 좋아 농가 재고량이 충족되었고, 가을벼짚 작업 시기에 날씨가 양호하여 전국 대부분이 다락논까지 벼짚 곤포작업을 하면서 가격 인하의 여건이 성립되어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생산자에게는 어려운 상황이고, 벼짚을 구매해야 하는 농가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2022년에 들면서 수송에 사용되는 화물차들의 디젤유 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상회하는 기이현상이 발생 되면서 운송비가 대폭 인상됨은 물론 화물 수송차량 섭외가 어려운 현실이며 11월 중/하순경쯤에는 70% 정도 수송이 완료 되어야 하는데 상차지 논마다 다니면

표1. 주요품목별 2021년 대비 2022년 가격등락(상차도 기준)

구분	품명	수분 (%)	규격 (cm)	중량 (kg)	2021 상차가	2022 상차가	등락 (원/롤)
동계작물	라이그라스	25%±5	125×125	450	70,000	100,000	△ 30,000
	청보리	25%±5	125×125	400	70,000	100,000	△ 30,000
하계작물 (사일리지)	옥수수	65%±5	100×85	500	65,000	90,000	△ 25,000
	수단	25%±5	125×125	400	65,000	80,000	△ 15,000
	사료용피	20%±5	125×125	350	70,000	90,000	△ 20,000
벼짚	벼짚곤포	25%±5	125×125	300	65,000	85,000	△ 20,000



서 상차해야 하는 조건 상 기사들에게 도외시 당하고 기사들 자체가 운송에 수익이 안된다 생각하여 수송을 꺼려하다 보니 아예 운송차량 섭외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물론 화물차주가 원하는 대로 가격을 지불 해 주면 수송은 가능 하겠지만, 1원이라도 아껴야 생존하는 어려운 시기에 운송비 조율이 여의치 않아 수송이 멈춰 있는 상황인데다가 11월24일 화물연대 총파업까지 예고된 상황에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작물의 경우 손익계산을 따져 파종을 하지만 수도작은 나름 편하고 정부수매 농산물이고 적정한 대체작물이 없어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벼짚 자체의 수급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벼짚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날씨와 미질향상을 위해 썰어 넣는데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 확대 정책이 관건이다.

정부에서는 FTA 수입개방을 대비한 선제조치로 지난 10여년간 국내산 조사료를 육성해 왔고 수입건초 대비 품질면에서는 아직 1:1 대체 수준까지 다다르지는 못하였지만 많은 부분 품질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필자는 10여년 전 사단법인 한국조사료협회 설립을 주도 할 때부터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조,지원을 요청해 왔지만 대부분의 예산은 재배면적 확대쪽으로 생산자에게 지급 되도록 편성되었고, 이용율 제고에 대한 축산농가 기술향상 지원 부분은 도외시 되었다.



아무리 좋은 원료도  
사용 노하우가 축적이 되지 않으면  
축산농가들은 사용을 하지 않는  
현실이기에 때문에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확대는 축산농가의 국내산 조사료  
이용기술 보급이 전제 되어야 한다.  
생산이 우선 중요하지만 현 상태의  
제품을 이용하는 기술 또한  
중요한 것이다.

## 수입건초 상황

조사료의 주축은 국내산 조사료와 수입건초이다. 수입건초의 가격을 주도하는 것은 주요산지인 미국의 작황이고 그에 버금가는 것이 원달러 환율이다. 동안은 국내산조사료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내 재배농가의 보호를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연간 약 80만톤이라는 양허관세를 적용해 수요량에 비해 항상 부족한 상황이었고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오르는 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COVID-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폭등 및 미국연준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은 식량자급율 24%인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인류에게 있어 식량이 우선 이다보니 국제사료곡물 값이 천정부지 올라 국내 배합사료 가격 또한 축산농가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상 되는데다가, 1,400원/1\$를 넘나들던 환

율은 수입건초 공급가격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여파로 낙농분야에서도 수입건초에 의존 하다가 건유우나 육성우 조사료를 국내산 조사료를 사용하다보니 한우가 대부분 사용하던 라이그라스가 2022년 120,000원/롤당 도착가로 거래가 되기도 했었다.

대개 11월이면 수입건초가 활발히 거래 되는 시기인데 몇 개월 전 1,450원/1\$까지 폭등 할 때 대부분 수입회사들이 신용장 개설을 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환율이 조금 인하 되면서 물량이 입항되기는 하였으나 최근 수송이 어렵고 운송노조의 파업예고 및 수입건초 보관창고의 보관료 상승을 우려한 덤핑제품들이 쏟아져 나와 일시적인 수입건초 가격인하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2023년도 상반기 수입건초 가격 예측은 미국산은 미국 철도노조의 파업여부가 관건이며(철도가 파업하면 육로로 수송하여 원가상승), 호주의 장마비로 인한 대부분의 연맥이 비를 맞아 향후에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수입되면 시장 가격은 낮아 질 것으로 보여지며, 호주산 연맥의 품질상 가격 인하로 미국산 건초 가격 또한 시장가격에 맞춰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국내업체가 동남아에서 재배한 건초들이 수입 예상되는데 경험상 품질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며, 해당제품이 거래되면서 전체 수입건초 가격이 저하쪽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수입건초 업체들이 국제은행을 통해 사용하는 USANCE 이자 및 부대비용이 예전에는 20원/kg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35원/kg까지 상승되어 수입건초 가격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1\$이하로 떨어지기 전에는 당분간 수입가





격은 떨어지지 않으나 업체의 창고 보관료 지불이 부담되어 연말 덤핑하는 물량까지는 그리 높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수입상들이 환차손이 심해지고 국내여건상 사용자도 줄어 들면서 폐업을 하는 회사가 많아진다는 것은 향후 수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 결론

2022년 연말부터 2023년 상반기 수입건초는 품질 고하를 떠나 국제금리(환율)에 적용되는 상황이라 예전 같은 가격은 바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공급수량 또한 넉넉하지는 않지만 기 수입된 수량이 시장에 풀리며 일시적인 가격 덤핑 시장이 형성되면서 국내산 조사료 벚짚의 공급량 증가에 대한 가격저하를 유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의 일시적인 현상은 가격폭등에는 청신호 이기는 하지만 수입건초는 언제든 부족하면서 고가일 수 밖에 없는 원료이므로 대가축 사육에 어려움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낮은감은 있지만 정부 차원의 국내산 조사료의 사용 노하우 보급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 필수체크사항!

“'21~'22년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은 '22년 11월 30일까지 도축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22년 11월 30일 이전 도축한 개체에 한하여 지원금 및 후보씨 수소 정액 지원

# 한우 저능력 암소 비육지원(농협 II형) 및 자율감축 사업 안내

신청 접수 기간 | 2022년 8월 1일~10월 31일

문의 | 전국한우협회(02-525-1053) 및 농협경제지주(02-2080-6563)

한우가격 안정화! 우리 모두가 동참합시다!



## 공통사항

- ① 신청일 기준 본인 소유의 개체만 사업 참여가능. 기 신청개체는 중복참여 불가
- ② 신청(약정) 후 해당개체를 양도하더라도 도축기간 내 도축 시 신청인에게 지급 (2022년 8월 1일 이후 양수양도 가능)
- ③ 도축 확인 후 우수정액 별도 신청권 지급

\* 한우자조금 재원으로 제공하는 농가지원금 사업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1 한우 암소 비육지원

- 접수처** 관내 지역축협
- 지원내용** 우수정액 별도신청권 지원(2.8str/두당)
- 대상 개체** 경산우 50개월 이하/'18.6.1일 이후 출생개체, '22.7.31일 이전 분만한 암소
- 도축 기간** '23.1.1 ~ '23.6.30
- 신청 한도** 농가당 최대 40마리
- 정액 공급** '23.10월 추첨 후 농가에 공급 (정액대금은 농가부담)

## 2 한우 암소 자율감축

- 접수처**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및 관내 지역축협
- 지원내용** 우수정액 별도신청권 지원(1.4str/두당)
- 대상 개체** 미경산우(20개월 이하 / '20.12.1.~'22.7.31.) 경산우('17.8.1일 이후 출생개체, '22.7.31일 이전 분만한 개체)
- 도축 기간** 미경산우 개체기준 36개월 이내 도축 경산우 '23.1.1~'23.6.30
- 신청 한도** 농가당 최대 40마리(미경산우+경산우)
- 정액 공급** 미경산우 1차('25.2~3월), 2차('25. 하반기) 경산우 '23.10월 추첨 후 농가에 공급 (정액대금은 농가부담)

## ※ 제외 대상 농가 및 개체

- ① 3년(2019.1.1~2021.12.31)동안 미경산우 또는 경산우 181마리 이상 출하 농가
- ② 신규농가(2021.1.1 이후 축산업 등록한 자)는 송아지 실적 면제되나 미경산우 또는 경산우 연간 61마리 이상 출하 시 제외(법인 포함)
- ③ 이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약정 미이행자 (농가보전금 반납 시 사업참여 가능)
- ④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우암소검정 사업의 저능력암소 조기 도태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⑤ 프리마틴, 신청농가와 소유주 불일치 개체



# 전국한우협회 창립 23주년 ‘2022한우인전국대회’ 성료

한우산업 위기감 공유, 자주적 수급조절 및 차단방역 결의  
세계에서 우뚝서는 안정된 한우산업을 향한 결속된 의지 표출

우리 협회는 지난 10월 7일 창립 23주년을 기념해 ‘2022 한우인전국대회’를 개최하고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단합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다.

이번 ‘2022 한우인전국대회’는 ‘우리, 함께, 다시’라는 슬로건을 걸고 충북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가 열리는 괴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최근 한우사육두수 증가 및 가축질병특별방역기간 돌입 등 한우산업을 위협하는 엄중한 위기감을 공유하고 힘찬 재도약을 위한 다짐을 결의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김홍길, 남호경 전임회장을 비롯해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이근수 전임 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군) 송인현 괴산군수,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이학구 한국후계농경영인연합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손세희 부회장(대한한돈협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호 의장,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 등이 참석해 한우인들의 힘찬 결의를 응원했다.





김삼주 회장은 “‘우리,함께,다시’ 라는 2022한우인전국대회의 슬로건처럼 우리 한우인들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한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재도약하기 위한 한우인의 단결된 의지를 세상에 천명했다”며 “한우인이 안정적으로 한우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그동안 한우산업은 농가들의 끊임없는 자구노력과 정부의 중장기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생산액이 5조7000억원으로 늘어나 농축산업 단일 품목 중 쌀·돼지 다음으로 큰 축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전국 한우농가와 생산자단체, 관계기관 등이 함께 모여 외치는 수급조절과 방역 결의다짐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농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 지자체, 전국 농가들과 함께 암소 감축과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상을 통해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정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신정훈 의원도 축사를 통해 전국한우협회 창립 23주년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본대회에서 3천여명의 한우농가들은 한우수급조절 및 방역결의문을 낭독하며 결속을 다졌다. 특히 도지회장단이 술선수범하여 선제적 자율감축에 서명하며 함께 선제적 수급조절 동참 구호를 외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밖에 부대행사로 축산기자재 부스를 운영하고 드론 방역시연, 인기 트로트 가수 이찬원, 은가은, 임수정 씨의 축하 공연으로 창립기념식 및 수급조절방역 결의대회가 마무리 됐다.

### 안정된 한우산업을 위한 우리의 결의

한우는 5천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으로 농업농촌의 기둥이다. 지금의 한우산업은 역대 최대 한우사육마릿수로 인한 공급과잉,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가격 폭등,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영 불안 등 위태로운 업황이 지속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안정된 한우산업, 국민에게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한우산업 구현을 위해 선제적수급조절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구제역 청정화 등 철저한 가축질병 예방으로 한우가 세계 만방에서 위상을 떨치고 고품질로 국위 선양하여 국가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한우인들은 미경산우비육 및 자율감축 등 협회가 추진하는 선제적 수급조절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한우산업의 안정화에 앞장선다.

하나.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축사관리에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며,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청정 한우산업을 구현한다.

하나. 우리 한우인은 나 하나의 행동으로 한우산업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무장하여, 한우산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정부당 행위를 자제한다.

하나. 우리 한우인은 청정 한우산업과 신뢰받는 한우산업 구현을 위한 실천결의문을 철저히 준수하며 모든 한우인들과 함께 실천한다.

하나. 우리 스스로의 실천이 쌓여 국민과 함께 한우산업을 지켜나간다는 자긍심으로 한우산업의 영속을 향한 우리의 결연한 다짐을 세상에 표명하며 안정된 한우산업 구현에 노력한다.

2022년 10월 7일  
2022 한우인전국대회 참석자 일동





## 우수한우인

장관 표창

서울인천경기도지회 여주시지부 **지웅길** 강원도지회 양양군지부 **박병인**  
충북도지회 괴산군지부 **김영덕** 대전세종충남도지회 당진시지부 **조만희**  
전북도지회 고창군지부 **류기상** 광주전남도지회 보성군지부 **윤인구**  
부산경남도지회 진주시지부 **최용언**  
경북대구도지회 성주군지부 **김종상**(미참석)



## 우수한우인

전국한우협회장 표창

서울인천경기도지회 강화군지부 **윤용성** 강원도지회 춘천시지부 **윤선근**  
충북도지회 음성군지부 **김명길** 대전세종충남도지회 청양군지부 **이환희**  
전북도지회 김제시지부 **유상훈** 광주전남도지회 김병권  
경북대구도지회 안동시지부 **김민성**(미참석) 부산경남도지회 김해시지부 **최영주**  
울산광역시지회 울주군지부 **김정락**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지부 **문성실**



# AWARDS CEREMONY



## 우수한우인

충북도지사 표창

괴산군 불정면 **지윤광**  
괴산군 감물면 **이범승**



## 우수한우인

괴산군수 표창

괴산군지부 **정해수**  
괴산군지부 **이정승**



## 협회전용사료 우수지부

전국한우협회

대전·세종·충남도지회  
홍성군지부 지부장 **이지훈**



## 감사패

괴산군수 표창

**홍문표** 국회의원  
면세유 지원연장 등 농축산인 세금감면 및  
농가수익 증대 기여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와 함께 여전히 국민 곁에서 사랑받고 있는 위대한 문화유산 한우.

우리 국민은 기쁨과 행복을 나눌 때, 존경과 감사를 전할 때 어울리는 최고의 음식으로 한우를 택한다. 일상을 특별하게, 특별한 날은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한우의 품격이다.

# 또 하나의 명절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최고, 제일, 으뜸’인 한우의 맛, 최고를 의미하는 10이 세 번 겹치는 11월 1일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전국서 개최  
4년만에 개장하는 한우숯불구이축제  
전국 10개 지역서 할인판매 및 숯불구이축제 동시 개최  
이태원 참사로 서울 행사 중단 및 지역 행사 축소

이태원 사고 희생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대대적인 할인판매와 한우숯불구이축제

‘최고, 제일, 으뜸’인  
한우의 맛



대한민국이 한우로 하나되는 또 하나의 명절, 11월 1일 한우의날을 맞아 열리는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행사는 1년중 한우를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대대적인 할인판매와 한우숯불구이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김삼주 회장은 “11월 1일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한우를 먹고 한우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길 바라는 한우농가의 염원과 한우를 보다 저렴하게 먹고 싶은 시민들을 위한 축제다”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전국 어디서든 도심속 한우숯불구이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이란?’

한우의  
의미와 가치를 새기고  
온국민이 한우를  
즐기는 날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은 ‘후손 대대로 길이 보전돼야 할 대한민국 문화유산 한우의 의미와 가치를 새기고 온국민이 한우를 즐기는 날’이라는 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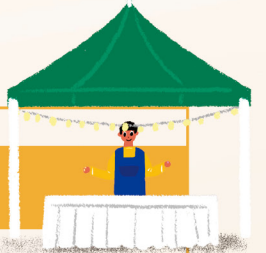
사진설명

한우는 세계 유일의 독자적인 유전자원으로 한국의 역사와 식문화를 책임지는 문화적 자산이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보물이다. 한우농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이 한우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 바라는 마음이 담긴 기념일이 바로 11월 1일 한우의날인 것이다.

한우의날엔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와 농협 축산경제(대표 안병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모두 공동으로 할인 판매행사 외에도 한우문화공모전과 한우숯불구이축제 등의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시행한다.



## 다시 돌아온 한우숯불구이축제



특히 이번 2022년 한우의날엔 코로나19로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한우숯불구이축제가 전국에서 개최됐다. 서울 살곶이체육공원에서는 오는 29일 대한민국이한우먹는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11월1일까지 한우숯불구이축제와 함께 한우 최대 50%할인, 한우문화공모전 전시 및 시식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서울 이태원 참사로 인해 살곶이체육공원 행사는 전면 중단됐다.

한우숯불구이축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 ▲경기도 남양주 다산선형공원(11.4~11.6) ▲강원도 춘천시청 주차장 일원(11.4~11.6)
- ▲충북 청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11.4~11.6) ▲서대전공원(10.26~11.1)
- ▲전북도청 일원(11.4~11.6) ▲전남 무안군 중앙공원(11.4~11.6)

- ▲경북 대구시 두류공원(10.28~10.30) ▲경남 진주종합경기장(11.2~11.6)
- ▲울산 울주군청 일원(11.1~11.3) ▲제주시민복지타운(11.1~11.3)에서 한우할인판매와 부대행사가 열렸다.



4년만에 개장하는  
한우숯불구이축제



정인철 울산시지회장이 전국 최초로 축산분야 통합관리 시스템 ‘ICT 한우종합관리 플랫폼’이 개발을 마치고 첫선을 보였다.

정 회장은 지난 10월 13일 자신의 농장에 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현 대통령실 비서관), 김삼주 회장, 기자 등을 초청해 현장 방문 및 시연 행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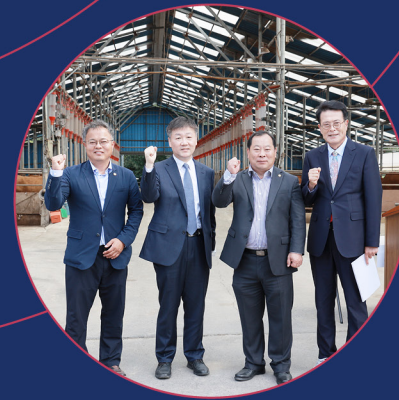


## 첨단기술로 사육하는 한우 한우종합관리 플랫폼

울주군, 다년간 꾸준한 지원으로 전국 최고 축산 ICT 플랫폼 개발  
정부, “농가 스스로 플랫폼 개발 감사…보급확대 노력”  
정인철 울산시지회장 “한우협회 회원농가 대상 전국 확대”포부

현재 울산 울주군 내 전국한우협회 회원농가 50여 곳에 설치된 이 시스템은 울주군의 지원으로 4년여 개발 끝에 완성됐다.

△차량 출입 △축산 등록차량 △소독대장 △공지사향 푸쉬알림 △개체이력관리 △브루셀라, 결핵 신청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문전 판매·구매 △공판장 신청 △우시장 신청 △전력제어 등 원격으로 축사를 소독하거나 사료 배급이 가능하며, 전력제어를 통해 지붕 개폐와 환풍기, 스탠치온(자동 목걸이) 등을 작동하는 기능도 갖췄다.



축사관리뿐만 아니라 출하시스템까지 연계됐다. 이런 기능이 행정기관·지역축협 등과 실시간 연동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대표적으로는 농가 방문차량의 출입시간과 차량번호 등을 감지해 소독 여부와 출입 확인이 가능하다. 또 수정사 및 수의사와 연계해 각 한우 개체의 수정과 임신 감정, 백신접종, 분만 등을 관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시스템에 즉시 이 정보들이 전달된다.



### ICT한우개체관리 시스템

- 실시간 연동 울주군 담당부서
- 실시간 연동 축협
- 실시간 연동 한우협회
- 실시간 연동 수정사, 공수의사





사랑농장  
조선희 대표

글·사진 박현욱 기자  
(농축유통신문)

## 이 세상에 나쁜 소는 없다

농장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육환경 조성 중요  
경영 마인드 장착 수익 내는 시스템 마련 필요  
한우협 전용사료, 소규모 농가에게 최적 '아이템'

한우만 40년 키운 경력자. 전라북도 완주의 사랑농장 조선희 대표는 한우 전문가다. 한우 사육뿐만 아니라 한우 유통까지 경험한 그는 '학문으로만 아는 지식'은 텅빈 강정과 같다고 말한다. 직접 한우와 부대끼고 축사에서 호흡해야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고 믿는 그는 "이 세상에 나쁜 소는 없다"고 주장한다. 학문에서 나오지 않는 사육 노하우로 수십 년간 우량 한우를 키워온 조 대표는 한우가 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최고의 한우는 최고 농민의 손길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하는 그에게 한우사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주>





### 한우협 전용사료 ‘가격·품질’ 월등

조 대표 농장에서는 전국한우협회에서 론칭한 협회 전용사료를 출시 때부터 애용해 왔다. 협회 사료를 사용한 후 수익성도 덩달아 향상됐다는 그는 협회 사료 사용 초기 비육 후기에만 먹었던 패턴을 한우 사육 전 구간으로 활용 범위를 크게 넓혔다. 협회 사료로 바꾸고 소들의 입질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품질은 타 사료와 비교해도 높이 평가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따져봐도 협회만한 사료가 없어요. 가장 비싼 사료를 급이한다고 해서 값비싼 한우가 생산 될까요. 저는 가장 최적의 사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우협회사료는 가격도 저렴한 데다 품질까지 월등하니 농가들이 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조 대표는 기존의 관성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 한우농가들의 습성을 안타까워했다. 협회 사료가 지역 평균 포당 1,500원 가량 저렴한데 굳이 기존에 사용하던 값비싼 사료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민간업체의 사료값이 크게 오르면서 한우협 사료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농가들은 기존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한우사육도 주판알을 튕겨봐야 하지 않겠어요. 한우협 사료로 인해 타 사료업체에서의 서비스까지 좋아졌죠. 농가들의 선택 폭이 넓다 보니 협회 사료가 배합사료 산업의 가격 상승의 견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한우협회에서 출시한 만큼 믿을 수 있고요. 서두에 강조했던 한우업계에 ‘신뢰’와 ‘믿음’의 결정판이 바로 한우협회 사료라고 생



작해야 하는 것이고요. 농가들도 주먹구구식으로 키우는 것보다 경영에 대해 반드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농장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무턱대고 한우 잘 키우는 농가를 찾아가서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성공하지는 않죠. 자신의 농장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조 대표의 농장은 번식과 비육 농장이 분리돼 있다. 번식의 경우 농가주의 손길이 수시로 필요하다보니 거주지 바로 옆에 구축해 뒀고, 비육농장의 경우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 조용한 곳에 만들어 외부 스트레스를 최소화했다. 제때 사료만 급이하면 무럭무럭 클 수 있도록 소마다의 특성을 데이터화 한 것은 기본이다.

각합니다. 특히 한우협회 사료는 소규모 농가에게는 최적의 사료입니다. 특별히 관리해주지 않아도 소들이 좋아하고 쏙쏙 잘 크잖아요.”

### “주먹구구식 사육 행태 이제는 버려야 할 때”

조 대표는 한우 농민도 이제 경영자 마인드를 장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한우를 기르는 것에서 벗어나 최고의 상품으로 가치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을 내는 농장을 만드는 비결에 대해 그는 운에 맡기는 사육에서 벗어나 자신의 농장에 맞는 사육 시스템을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말한다.

“좋은 소를 만드는 환경 구축은 기본으로 장

“농장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무턱대고 한우 잘 키우는 농가를  
찾아가서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성공하지는 않죠. 자신의 농장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신뢰’가 늘 자리했다고 이야기한다. 경매 현장과 늘 스킨십을 해온 터라 우량 송아지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손꼽히는 한우를 출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150두 규모의 한우농장을 유지하며 소값에 연연해 하지 않는 안정된 한우 사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우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농민의 열정과 땀이 그대로 출하성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쁜 소는 없어요. 이제는 소를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좋은 사육환경을 제공해주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는 게 우량 한우를 키우는 노하우입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고 애쓰면 됩니다.”

### 한우산업, 농가·유통인 간 신뢰 중요

“한우 농가들이 부탁을 많이 하죠. 한우 키우는 노하우를 묻는 농가부터 우량 송아지를 대신 구매해 달라는 농가까지 셀 수 없죠. 1980년대 초반부터 한우를 사육하기 시작해 그 옛날 우시장을 직접 다니면서 송아지를 사고 파는 일을 직접 했었죠. 축산분야의 학문이 예전부터 정립돼있다 하더라도 책에는 나오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현장에서 직접 부딪쳐봐야 압니다.”

조 대표는 한우 유통을 경험하면서 ‘신뢰자본’을 강조한다. 농가간 유통인간 신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가 수십 년간 큰 굴곡없이 한우 사육을 유지하는 데는 ‘믿음’과



자동화시스템을 조작하는 모습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농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한우 한 마리 한 마리 특성을 파악하고 데이터화하고 보니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을까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사랑농장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회전율을 빠르게 가져가는 게 농장 수익을 위해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랑농장은 비슷한 규모의 타 농장보다 월등히 출하 두수가 많다. 한우경매시장 현장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로 한우 거래 정보량이 많은 데다 대부분 암소가 1산이 되면 출하한다.



조 대표 농장이 빠른 회전율이 가능한 데는 축산물 거래를 오래 해온 탓도 있지만 유통인간 중도매인간 신뢰가 쌓여 가능한 일이다.

“저는 농가들에게 늘 수익을 강조해요. 국민의 먹거리 생산이라는 대의도 있지만 농가들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가 경영을 하는 데 사료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한우협회는 협회 전용사료 보급으로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체감할 수는 없지만 협회전용사료가 없을 경우 한우농가에 피해는 눈에 띄게 나타날 겁니다.”



# 2023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이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을 위한 스마트축사(ICT융복합 장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

### 지원내용

축산분야 ICT장비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CCTV, 악취저감 장비 등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지원축종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말

### 신청절차



### 지원율

상한액	국고	융자	자부담
15억원	30%	50%	20%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융자금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간 : 농협은행
- 지원한도 내 최대 3회 지원가능  
\*그 외 상세내용은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참조  
사업시행지침은 스마트팜코리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사업신청 및 문의 시·군·구 축산관련부서  
스마트팜 컨설팅 문의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Tel. 044-861-8768, 8769, 8803)  
스마트팜 대표 홈페이지 [www.smartfarmkorea.net](http://www.smartfarmkorea.net)  
현장설명회 문의 디피넷 (010-5638-3017, iljang8560@nate.com)



### 2023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 진행 일정은 스마트팜 대표 홈페이지 ([www.smartfarmkorea.net](http://www.smartfarmkorea.net))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2022년 9월 ~  
운영기간 2022년 10월 5일 ~ 10월 26일  
대 상 스마트축사에 관심있는 축산농가 누구나



## 컨설팅을 통한 미경산우 비육 프로그램의 확립

글. 지엠디컨설팅

최근의 컨설팅 현장에서 미경산우 비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수소보다 가파른 암송아지 가격의 하락도 그 원인일 수 있겠으나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적인 측면이 미경산비육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요인 일 것이다. 이 번호에서는 미경산 비육과 거세비육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미경산 비육에 돌입하기에 앞서 번식을 위주로 하는 농가에서는 경산우 비육을 통하여 도태를 진행 할 것이나, 미경산 비육을 통하여 도태를 진행 할 것이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결국 보다 빠른 선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사육후 비육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농장이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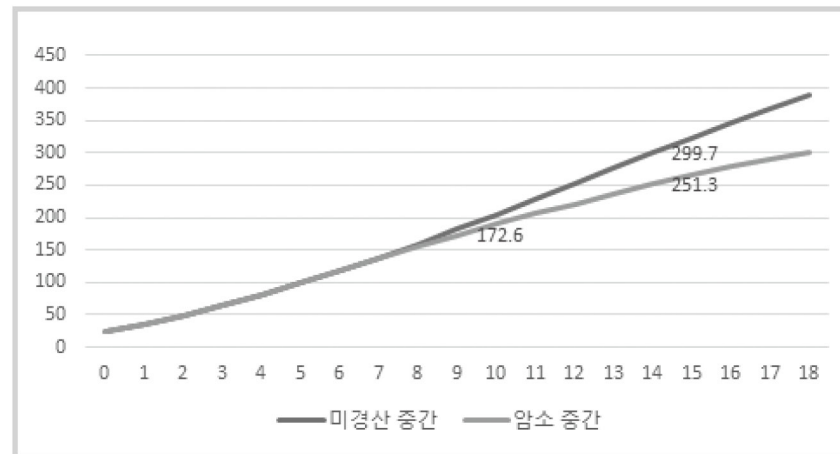
그러나 한우의 월령별 사육형태에 따른 표준체중을 볼 때 비육목적에 따른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는 8개월령 전후 부터이고 이차이는 18개월령 거의 90kg에 이르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빠른 비육선택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육공간의 제약이 없다면 가능하면 6개월 이전에 비육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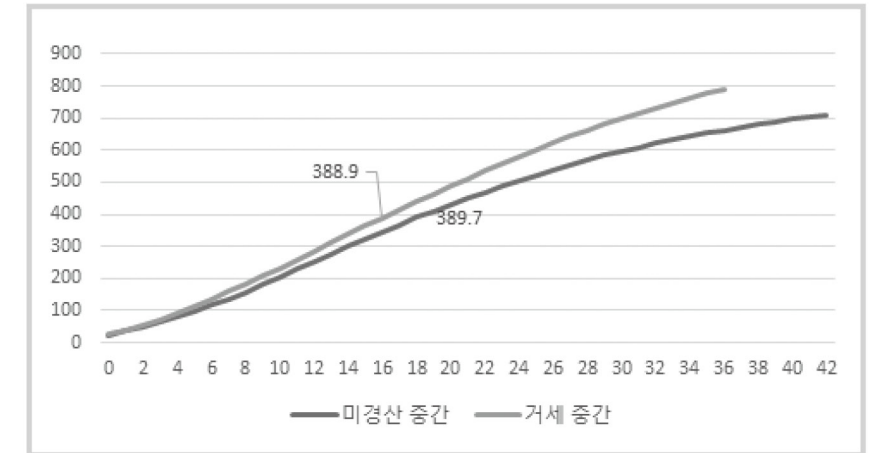
반면 경산우 비육의 경우 3산을 초과 할 경우 육질등급이 하향되는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되며, 사실상 이러한 손실을 보지 않는다면 후대검정을 통한 우수축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3산비육이하 경산우 비육과 같은 방법 보다는 이원화하여 2산이상 우수축의 경우는 번식에 활용하여 산차를 연장하고 미경산 비육을 병행하는 형태의 운영방안을 권장한다.

미경산 비육과 암소 월령별 생체중



미경산 비육과 거세우 비육 월령별 생체중



미경산 비육에 있어서 비육프로그램은 대부분 거세비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거세우와 미경산 비육우의 월령별 표준체중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생체중 400kg 도달 월령이 약 2개월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판단 한다면, 육성기간과 비육전기 사용구간 이후 전체 비육기간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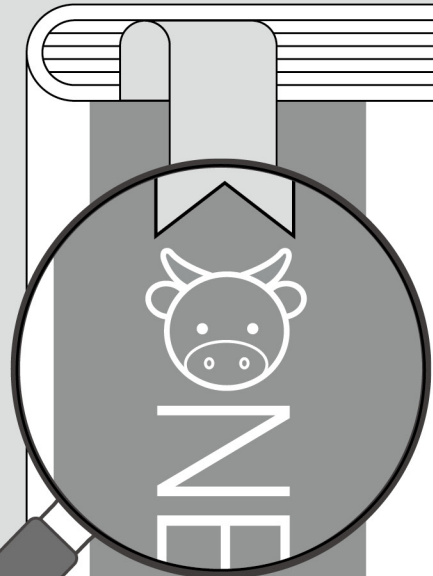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미경산우의 육성기간은 2개월정도 연장하여 16개월령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에 따른 섭취량도 배합사료 기준으로 1kg 정도 하향 조정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이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초기에 비육전기로 전환할 경우 초기 비육으로 인한 육량등급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육기간 중에는 큰소 사용기간을 2개월 정도 연장함과 동시에 급여량도 1kg정도 하향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기간 중 거세우와 동일한 급여량을 유지 한다면 보다 빠른 입담음 현상을 초래 할 수 있으며 이는 육량 저하와 육질저하에 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마무리구간의 경우 경산우 비육과 마찬가지로 큰소 비육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기는 하나, 30개월 이상의 사육기간을 확보 한다면 마무리 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근내지방도 침착과정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POINT LESSON

모든  
한우  
농가  
에게  
필수  
인  
템플릿



이중현 농학박사  
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사무국장

# 전북한우조합 등록우 경매시장을 가다

## 1. 머리말

「전북한우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협동조합이 아니다.

협동조합 자체가 도 단위 광역이며 품목단위의 협동조합인데 전국에는 이런 형태의 농림축산식품부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8개소가 있다.

그 가운데서 혈통등록우를 경매하는 조합은 전북한우협동조합이 유일하며 “한우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민족 고유의 한우만을 전문으로 하는 품목별 협동조합이다.



<사진1> 경매장면을 보고 있는 김창희 조합장(필자촬영)

전북지역 700여명의 조합원과 함께하는 김창희 조합장은 경매가 있는 날이면 한번도 빠지지 않고 경매장에 찾아와서 경매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요즘엔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여 한우 농가들이 걱정이라며 조합에서는 지나친 하락과 상승을 견제하기 위한 수급조절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면서 가격이 하락 하더라도 한우농가에서는 거세우를 최저 마리 수준으로 순환 시켜 가면서 소를 계속 키워야만 한다”고 말했다.

전북한우협동조합은 소규모의 농가와 함께 하기 위하여 50두 미만의 사육규모를 가진 소규모 농가만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데 사료의 운송문제, 다두사육농가의 요구에 따라 내년부터는 50두 이상의 사육을 하는 농가도 조합원가입을 허용 할 계획이라고 한다.

## 2. 내정가격을 혼자 정하는 사람

전북한우조합에서는 등록우 내정가격을 한 사람이 책정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3인이 합동으로 최저 입찰가격을 책정하지만 여기서는 김정용 지도상무 한 사람이 송아지를 보면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다.

김정용 상무는 뒤에서 송아지를 보는 이유를 “체형을 먼저보고 후구를 보고 다리는 휘어지지 않았는지를 보는데 후구를 보는 이유는 암송아지는 새끼를 잘 낳아야 하기 때문에 후구가 중요하고 수송아지는 비육 시킬 때 육량이 많이 나온다”고 하였다.

2~3년 전부터 전북조합의 송아지 가격이 좋은 이유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이력제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송아지를 구매하는 소비자들로부터 믿음이 가도록 해야 하고 송아지가

많이 출하될 때는 조합에서 구입하여 위탁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시장이 안정적이며 출하자와 구매자들 사이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송아지가 크지 않아도 경매가격이 좋은 이유이다.

농가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어



<사진2> 내정가격을 책정하는 김정용 지도상무(필자촬영)



보니 조합에서 송아지의 관리를 잘 한다면서 뿔만 보면 송아지의 출생일자를 속였는지 정확한 지를 잘 안다고 했다.

김정용 상무는 송아지를 출하하는 농가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농가는 10년이상 개량을 했으며 어느 농가는 처음 송아지를 구입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송아지 가격을 책정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며 생산된 송아지의 어미체형, 자질, 우량정책에 의한 인공수정, 사양관리 수준 등을 파악하고 송아지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는 단계이며 봄철에 태어난 송아지가 많이 출하되어 급하게 축사를 증축하여 송아지가 많이 출하되어도 문제가 없도록 하였는데 경매장이 미쳐 증축 되기도 전에 경매하느라 지붕도 덮지 못하였다.

### 3. 송아지 뿔을 보면 체형을 알 수 있다

「사진3」에서 3마리의 송아지 뿔을 보면서 체형을 살펴보면 가운데 있는 송아지는 체폭도 좁고 뿔도 가늘고 길다. 맨 우측에 있는 송아지는(왼) 뼈의 밑 부분이 굽으면서 색깔도 밝다.



<사진3> 송아지 뿔의 모양(필자촬영)

우시장에서는 뿔만 보고 만약 뿔이 가늘고 길면 체폭(몸통)도 좁으면서 살이 찌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색깔은 밝은 살색의 뿔이 좋다고 하였다.

뿔의 색이 탁하거나 녹색(대나무뿔)이거나 조직이 치밀하지 못한 송아지는 고르지 않는 것이 좋다.

뿔의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고 비늘같이 된 송아지는 발굽도 약하며 송아지가 제대로 크기도 전에 발톱이 앞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번식하는 암소도 발굽이 튼튼해야 되고 24개월 동안 비육하는 수송아지라고 해도 발굽이 단단해야 1,000kg이상 크게 키워도 자기의 체중을 버틸 수 가 있을 것이다.

어린 송아지 뿔이 잘록하게 들어가 있으면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뿔에 이상이 있는 송아지는 구입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람도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손톱에 줄이 가거나 영양이 좋지 않으면 손톱에 윤기가 없는 것과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대부분의 농가는 그렇지 않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송아지의 생산일자를 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다른 개체에 비하여 뿔이 길게 자라기 때문에 등록우 시장에서는 뿔이 길게 자란 송아지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좋은 송아지와 그렇지 못한 송아지는 한 마리에 10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도 많이 다녀 보면서 좋은 송아지 보는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 이다.

### 4. 좋은 송아지는 더 좋게 보인다



<사진4> 송아지 뒷모습 모양(필자촬영)

「사진4」는 뒤에서 본 송아지 모습이다.

소를 볼지 모르는 일반 사람이 보더라도 큰 송아지와 작은 송아지를 구별 할 수 있으며 체형이 작은 송아지를 가지고 경매시장에 출품하면 안되는 이유이다.

「사진4」의 맨 좌측 송아지가 49번 인데 다른 송아지들 보다 후구의 발달도 좋고 체고도 높으

<표1> 경매출품우 현황

(단위:천원)

번호	예정가격	생일	낙찰가격	차이(낙찰-예정)	유전능력
49	4,400	2.18	5,260	860	AAAB
50	1,700	2.18	-	경매포기	AAAB
51	3,700	2.16	4,590	890	AAAB
52	3,450	2.15	3,720	270	BBBA
53	3,650	2.14	4,490	840	AAAC
54	3,500	2.13	3,960	460	AABA
평균	3,400	2.16	4,404	664	



며 다리의 모습도 튼튼하게 생겼다. 그 사이에 끼인 50번 송아지는 발육이 매우 부진하며 큰 송아지 사이에 매여 있어서 마치 어미와 송아지가 있는 것같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50번의 송아지는 생일(2월 18일) 차이도 없으며 유전능력도 같다.

출품자는 경매를 포기하고 농장으로 실어 갔지만 송아지가 너무 적기도 하거니와 큰 송아지 사이에 끼어서 출품하는 바람에 더욱 작아 보인다.

5일 이내의 출생 차이도 없고 유전능력도 좋지만 송아지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일까?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하나는 어미의 상태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농가들은 우량한 씨수소의 정액으로 인공수정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아버소의 정액을 고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많다. 실제로 농가에 한우개량 컨설팅을 나가 보면 모두가 좋은 씨수소의 정액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씨수소의 정액을 구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내가 우리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번식암소 중에서 불량하고 작은 송아지를 태어나게 한 어미소를 골라서 도태 하는데 최근과 같이 소 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강도를 높여서 20%이상의 비율로 도태하고 우량한 씨암소를 보유하면서 송아지 가격이 다시 상승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사료 가격 상승, 기름가격, 환율 등 우리에게 유리한 면이 거의 없어 30% 이상의 강한 도태를 권유하고 싶다.

## 5. 맺음말

전북한우협동조합은 소속 조합원들의 소득을 걱정하고 한우를 기르는 조합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기술지도는 물론이며 조합원들이 정성들여서 기른 한우가 경매시장이나 먼 곳으로 팔려 나가지 않게 김제, 전주에 한우고기 판매장을 개설해서 직거래 판매를 많이 하고 있다.

한우고기 가격도 저렴하여 평상시에도 조합에 들러서 보면 식당에 손님들이 가득 찬 모습을 흔히 목격 하였다.

경매장을 보면 전국 경매장 중에서 가장 경비를 적게 들인 표시가 난다.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니 평상시 보다 송아지가 많이 출하 되었다.

2일에 걸쳐서 경매를 진행 할 수도 있지만 농가의 편리를 위해 경매장을 급하게 증축했다는 조합장의 말을 들으니 정말 농가를 위한 조합이라고 생각했다.

조합의 편리가 아닌 조합원의



<사진5> 송아지 출하가 증가하여 증축한 경매장(필자촬영)



<사진6> 송아지 경매를 지켜보는 한우농가(필자촬영)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경매장을 늘리는 것은 조합장과 직원들의 마음이 통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지금 소에게 주는 먹이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농후사료의 원료만 오른 것이 아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벵조 가격까지도 올랐기 때문에 생산비가 매우 높아져서 한우를 길러서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현상유지도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번식우 특성상 봄철(3~5월)에 송아지가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송아지 출하는 겨울(11월~1월)에 출하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송아지 가격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어 올 겨울의 송아지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

할 것인가 주목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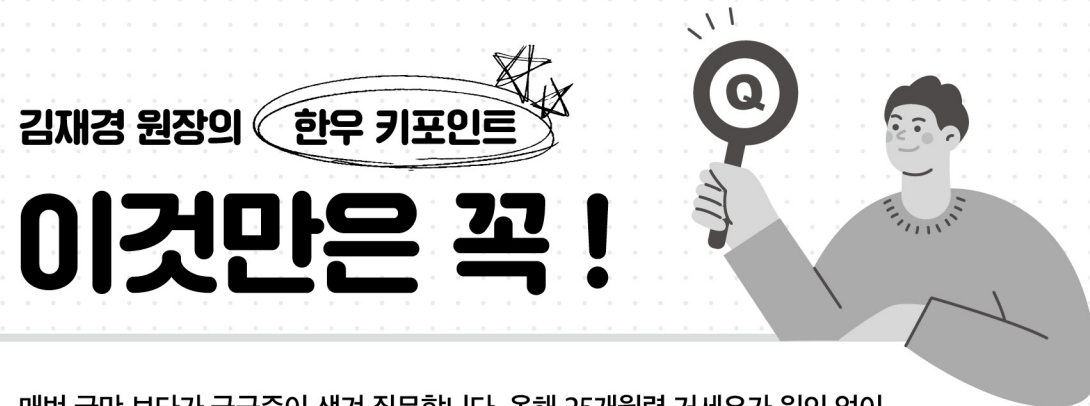
가격이 하락 한다고 해서 소를 키우지 않을 수도 없으니 경영적인 면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침 일찍부터 경매장에 송아지를 출품한 많은 농가들은 오늘 송아지 가격이 매우 궁금하겠지만 일부 농가는 10년 전부터 좋은 암소를 선발하여 개량을 했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받는 농가도 있다. 송아지 가격이 하락 한다고 해도 좋은 송아지는 비싸게 경매가 되며 송아지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경쟁력을 키우는 확실한 방법은 우량한 어미소를 많이 보유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많은 농가가 한우를 사육하다 보면 헛갈리거나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면서 소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오랜 기간 수의사 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노하우들과 현재 ‘소앤소 김재경 원장’이라는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한우 농가들이 쉽게 질병이나 사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재를 해보려고 한다.



매번 글만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 올해 25개월령 거세우가 원인 없이 급사하는 바람에 신경도 많이 쓰이고 걱정이 됩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고 전체적으로 살은 안찌고 배만 좀 커진 느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동네 수의사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여 부검을 하려다가 그냥 묻어 버렸습니다. 비육 후기에는 원래 배부터 뽕뽕해지는 것이 맞나요?

원장님은 경험이 많으시니, 조언 한번 부탁드립니다.



**A**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세한 이유는 혈액검사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고기소의 돌연사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습니다.

영양장애(대사장애)	급성고창증	제1위 과산증
대뇌피질괴사증	장간막 지방괴사증	그라스테타니 (grass tetany)
노석증에 의한 방광파열	클로스트리디움 (Clostridium)	
기생충, 세균, 유두분선충, 헤모필루스 솜너스 (Haemophilus somnus)		

## 급성고창증

### 1) 원인

- ✓ 콩과건초(알팔파 건초, 큐브)
- ✓ 조사료 부족 및 농후사료 과다
- ✓ 음수 부족으로 제1위액의 점도 상승
- ✓ 유전성

### 2) 증상

- ✓ 우측 복부가 팽창
- ✓ 호흡곤란
- ✓ 뒷발로 배를 찬다
- ✓ 한 번 발생하면 만성화 될 수 있다

### 3) 대책

- ✓ 제1위 내 호스를 삽입하여 가스 제거
- ✓ 가스 제거 첨가제(유산균, 뉴트리펜) 등을 경구투여
- ✓ 상태가 심한 경우 투관하여 가스제거

### 4) 예방

배합사료 급여 전 조사료 급여하고, 콩과 식물 건초의 과다 급여 금지하고, 볏짚을 많이 먹인다. 만성인 경우는 비닐과 같은 이물질질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수술이 필요하다.



캡슐형 알약첨가제를 이용하여 강제로 가스제거제 급여

## 제1위 과산증

### 1)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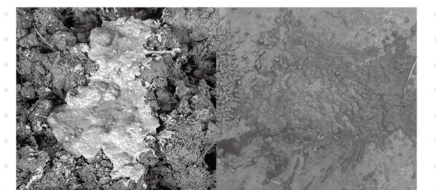
조사료 부족 및 배합사료를 과다 급여하면 제1위 내에 당류 및 전분질이 소화 잘되어 즉, 발효가 빠르게 일어나 제1위 내의 pH가 급격히 저하된다. pH의 저하에 의해서 그람 음성균이 죽게 되어 그로 인해 내분비 독소(endotoxin)를 생산하게 되어 이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고 대량 생산되어 휘발성 지방산에 의해 발생된 히스타민의 장애를 일으킨다.

### 2) 증상

- ✓ 배합사료를 남김
- ✓ 설사, 연변
- ✓ 변색이 회색이 된다.
- ✓ 기력이 없다.

### 3) 대책

- ✓ 볏짚 급여량 증량
- ✓ 조사료 우선 급여
- ✓ 생균제(효모제), 뉴트리펜의 급여



과산증 증상으로 인한 연변



## 대뇌 피질 괴사증

### 1) 원인

비타민B1의 부족  
(미생물이 생산) →  
비육 후기에 발생

### 2) 증상

- ✓ 급격한 사료섭취량 감소로  
기력부족
- ✓ 걸음걸이가 흐느적 거린다.
- ✓ 근육, 귀, 코, 눈이 떨린다.
- ✓ 이빨을 간다.
- ✓ 기립 불능

### 3) 대책

비타민B1의 주사 →  
체중 1kg당 5mg의  
비타민B1을 주사한다

### 4) 예방

- ✓ 발생 빈도가 높은 농장  
은 예방차원으로 비타  
민B1을 체중1kg 2mg  
을 급여한다.
- ✓ 벼짚 급여는 하루 최저  
1.5kg 이상 급여한다.

## 장간막 지방 괴사증

### 1) 증상

- ✓ 배합사료 섭취량이 줄어  
든다.
- ✓ 변의 색깔이 조금 옅은  
색깔이 되고 양이 줄어  
준다.

### 2) 대책

- ✓ 조기출하

### 3) 예방

- ✓ 비타민A의 적절한 첨가
- ✓ 과비방지



사료섭취 저하로 체중 저하와 변의 색이 옅어진 지방괴사증 의심 개체

## 그라스테타니 grass tetany

### 1) 원인

방목지 토양에 마그네슘 함량이 극히 낮은 경우 그  
곳에서 생산되는 곡류와 목초류에 마그네슘 함량이  
떨어진 것을 섭취하거나 마그네슘 흡수 및 이용 장  
애가 나타났을 시 발생분뇨를 다량으로 시비한 초  
지에서 생산된 건초를 다량 급여했을 때 발생.

### 2) 증상

- ✓ 사료섭취량 저하
- ✓ 원기저하, 무기력
- ✓ 시각장애
- ✓ 연변, 설사
- ✓ 호흡 곤란

### 3) 대책

경과가 빠르게 나타나므  
로 소를 세심하게 관찰  
할 필요가 있다.

## 뇨석증

### 1) 증상

- ✓ 음모에 뇨석이 부착
- ✓ 오줌량이 점점 떨어진다.
- ✓ 배를 찌는 현상을 보인다

### 2) 대책과 예방

- ✓ 비육기에 비타민A의 결핍 예방
- ✓ 조기 발견시 뇨석증 치료제 경구투여



뇨석증 증상

## 유두분선종

### 1) 증상

- ✓ 전조 증상이 없이 급사한다
- ✓ 괴성을 지르며 급사하기도  
하는데, 주로 여름에 발생한다.

### 2) 치료 및 예방

- ✓ 구충제 급여 및 투여

## 헤모필루스 송너스 Haemophilus somnus

### 1) 증상

- ✓ 40℃이상 발열
- ✓ 콧물을 흘린다
- ✓ 걸음걸이가 비틀비틀 거리고,  
기립 불능도 일어난다.
- ✓ 혼수상태에 빠진 후 폐사에  
이르기도 한다.

### 2) 치료 및 예방

호흡기 치료 예방 →  
입식전 “쥬프레보” 등을 주사한다.

## 클로스트리디움증 Clostridium

### 1) 증상

전조 증상 없이 급사하는 경우가  
대다수

### 2) 치료 및 예방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이처럼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축주분께서 수시로 관찰을 해주면서  
질병을 예방 및 빠르게 대처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인식 작가의

# 식량

## 미국에서 소고기 가격 상승으로 소 반마리를 한꺼번에 직접 구매하 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육을 포함한 1인당 육류 소비  
량이 101.8kg에 달하는 미국에서 40년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식품점에서 부분육을 사던 소비자들이 가격을 낮추려고  
소 반마리를 사거나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사는 추세가 늘고 있다고 미국 주요 언론 매체들이  
보도하였다.

실제로 미국내 육류가격은 지난해 7월 이후 평균 17%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구매량을 줄이거나 가격이 싼 부위를 찾고 있으나,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이나  
소비량이 많은 집에서는 축산 농가들에게 직접 구매를 하거나 냉동고를 갖추고 대용량을 구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식료품 공급 부족으로 육류를 축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러한 추세  
가 늘고 있다고 진단하며, 육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 도축장들이 50년전에는 소고기 가격  
1달러당 축주에게 도축 수수료를 제외하고 67센트를 돌려주었으나 지금은 단지 39센트만을 지  
불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축우 농가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구매 요청이 늘어 주문을 받은 후 인근 도축장에서  
위탁 가공후 택배로 보내는 물량이 늘고 있다고 밝히며, 소 한 마리를 도축후 4분의 1 물량 요  
청시 파운드당 10달러에 공급하는 가격이 전체 물량 주문시 9달러에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또  
한 소비자들도 냉동고를 사고 전기료를 감당하여야 하며, 전체 부위를 소비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3분의 1가격으로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어 만족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마사이족이 40년만의 최악 가뭄으로 소값이 1만2천원으로 폭락하여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40년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동부 지역 국가의 2천2  
백만명의 인구가 기아상태에 놓여 있다고 유  
엔 식량기구(World Food Programme)가 발  
표한 가운데, 목축을 생업 수단으로 이동하며  
생활하는 마사이족이 소 값 폭락으로 최악의  
생존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케냐, 탄자니아 등지에서 2백만명 정도가 거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사이족은 소를 사육하  
는 것이 모든 경제적인 활동의 전부로, 이들은  
소고기, 지방은 물론 우유, 유제품으로 식량을  
해결하며, 소 혈액으로부터 소금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소 갈비뼈나 뿔을 이용하여 주방용품이  
나 물통을 만들고 가죽을 이용하여 옷이나 신  
발을 만드는 것은 물론 잠자리나 이동식 천막  
을 만들고 있으며, 거주하는 집은 우분이나 오  
줌을 이용한 반죽으로 벽체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마사이족들이 가뭄으로 풀 사료를 구  
할 수 없게 되자 가축시장에 소들을 방매하고  
있는데, 통상 두당 6만에서 6만5천 실링(70만  
원-75만원) 수준이던 소값이 단지 1천5백실링  
(1만2천원)으로 폭락하여 이들 부족들의 경제  
활동이 마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  
나 전쟁으로 곡물 가격과 석유가격이 상승하  
면서 더 악화되었는데, 사료가 없어 폐사하는  
소들이 속출하고 그나마 살아있는 소들도 송  
아지가 전부 폐사하여 마사이족 존립 기반 자  
체가 붕괴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편,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최근 4년간 계속  
된 이 지역 가뭄으로 수백만두의 가축이 폐사  
하였고, 식량 생산이 마비되어 110만명의 사람  
들이 식량을 찾아 방황하고 있으며, 자체적으  
로 4억 2천만달러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천2백만  
명의 인구가 기아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제적  
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 향수한우타운 옥천군 한우지부 구심체 역할 톡톡

농가 권익 보호 위한 유통·사료가공 사업 매진 '성공신화 쓰다'

옥천군 한우협회는 전국한우협회 중앙회가 출범한 뒤 8년 뒤인 2007년 3월 창립됐다.

전국 8도의 도지회 및 시·군지부가 결성되어 한우농가를 위한 권익 보호 활동이 한창이던 무렵, 늦깎이로 출발한 셈이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라고 했던가.

현재 옥천군 한우협회는 한우협회 전국 지부 중 농가형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유일한 지부로 꼽힌다. 특히 식당에 이어 TMR 공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농가들의 구심체로 발전을 거듭, 주목받고 있다.

옥천군 한우협회 중심에는 초대 옥천군 지부장이자, 옥천향수한우영농조합법인 한두환 대표가 있다. 한 대표를 만나 옥천군 지부의 설립부터 향수한우판매타운 성장 스토리를 들었다.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가화길 86 주1동

영업시간 : 11:20 ~ 22:00

1 한우협회 옥천군지부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지부장을 지낸 한두환 대표는 향수한우를 탄생시키고 지금의 한우타운 조성을 주도하였다.



2 2008년 수상한 우수지부패

### 옥천군은 왜 한우협회가 없나?

한우협회를 결성하기 전 한우사육과 유통업을 함께 했던 한두환 대표는 지방을 방문할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로 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었다.

“옥천은 왜 한우협회가 없느냐?”라는 것이었다.

질문이 반복될 때마다 한 대표는 “나는 농민운동엔 관심 없다. 먹고 살기에도 바쁘다”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지부와 도지회 활동에 열심이었던 농가들은 “한우농가들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면, 한우산업과 농가를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협회 설립을 지속해서 권유했다.

“소를 사러 경북에 많이 내려갔었는데 경북에선 특히 더했어요.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해 한우 농가들의 구심체를 꼭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었죠.”

결국, 한두환 대표는 옥천의 한우농가 소모임에서 한우협회 설립에 관한 논의를 지속한 끝에 2007년 3월 24일 옥천군지부를 발족하기에 이른다.

한우농가들이 ‘판매점과 식당’을 운영하는 등 판로 확보를 위해 군 차원에서 도움을 달라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결국, 옥천군 한우협회는 사업 실행을 위해 옥천한우영농조합법을 만들고, 옥천군 외곽지역에 군 소유지 땅인 옥천군 가화길 84번지에 옥천향수한우판매타운 식당을 건립하기에 이른다.



## 한우농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초대 지부장을 맡은 한두환 대표는 이후부터 ‘한우농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했다. 남호경 당시 한우협회 중앙회장을 자주 찾아 한우협회와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한 대표는 회고했다.

그런 그에게 옥천군 한우협회를 변화시킬 운명의 계기를 마주하게 된다.

3 판매장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사업은 옥천군 한우 농민의 중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4 판매장 전경 모습.



우연한 기회에 일본의 화우산업 현황과 유통을 견학하게 된 것이 그것이다.

한 대표를 놀라게 한 건 다름 아닌 ‘화우의 유통 현황’이었다.

지금처럼 도매시장을 통한 지육 거래 방식이 아닌 우시장이나 문전 거래가 일반적이었던 국내 현실과 달리 화우는 송아지 거래 시장을 제외하곤 대부분 ‘도매시장’을 통한 지육 거래가 상당 부분 활성화되어 있었다.

한 대표는 향후 국내 한우 유통 시장 역시 지육 거래 방식으로 전환될 것을 예감하고, 군수에게 농가가 직접 한우유통 부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한우농가들이 ‘판매점과 식당’을 운영하는 등 판로 확보를 위해 군 차원에서 도움을 달라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결국, 옥천군 한우협회는 사업 실행을 위해 옥천한우영농조합법을 만들고, 옥천군 외곽지역에 군 소유지 땅인 옥천군 가화길 84번지에 옥천향수한우판매타운 식당을 건립하기에 이른다.

## 2010년 6월 마침내 ‘옥천향수한우판매타운’ 개점

농가들에게 판로 걱정 없이 오직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들에겐 질 좋은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한두환 대표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개점까지의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농가형 한우 판매점이 건립된다는 소식이 전



해지자 옥천관내 음식 점주들이 강력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음식점 대표들은 군비 지원을 철회하라며 군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벌였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군에서도 애초 예정지가 아닌, 옥천 시내에서 식당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정안이 들어왔다.

한두환 대표는 “우리가 농가형 한우식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옥천군민을 상대로 한 영업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인근 대전시 등 대도시 소비자들을 중심 소비층으로 삼고 있다”며 음식점 사장들을 설득하는 한편 군 측에는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려는 것은 이익추구가 아니라 농가들의 판로 확보와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2년여의 공사 기간을 마치고 결국 2010년 6월 27일 옥천향수한우판매타운은 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식당과 판매점을 동시에 개점하며 첫발을 내딛게 됐다.

## 농가형 한우식당 반대 집회.. ‘전화위복’ 계기가 되다

전화위복이라 했던가. 옥천군 음식 점주들이 집회와 반대로 한 대표는 물론 농가들의 맘고생이 심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반대 집회 현장이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자연스러운 홍보가 이뤄진 것이었다.

개점 첫날부터 ‘한우를 생산하는 농가들의 직영 판매장과 식당’이라는 기대를 갖고 방문하는 소비자들로 크게 붐볐다.

마케팅 전략도 적중했다. 개장 초기 이익의 대부분을 식당을 홍보하는 데 할애한 것이다.



대전 MBC와 라디오 방송 광고는 물론 지하철까지 활용해 향수한우판매타운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옥천군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큰 도시의 소비자들이 찾아주지 않으면 식당의 성공은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TV와 라디오 광고도 시청률과 청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골라 집중 광고했습니다. 고기 품질엔 자신 있었으니까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 코로나 19 위기에 ‘고속성장’

식당과 판매점의 성공만큼 농가들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

한 대표가 예상했던 것처럼 국내 한우유통 시장 역시 일본처럼 도매시장 중심의 지육 유통

으로 빠르게 재편된 가운데 한우식당이 개점했던 2010년엔 한우 사육두수가 크게 늘어 농가들에게 인기가 높은 농협가락공판장 같은 경우 예약 자체가 쉽지 않았다.

2012~13년 전국의 도매시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던 당시 향수한우판매타운에서 작업한 소 마릿수만 각각 1300마리와 1600여 마리를 넘었다.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 옥천군 한우협회 회원 농가들은 서울까지 소를 이동하지 않고도 근거리에서 소를 도축하며 상장 경매 수수료 등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솟값이 하락했던 시기임에도 적정 가격을 보장받으며 안정적으로 출하했다.

특히 옥천한우판매타운은 개점부터 생후 70개월령 이하, 3산이하의 암소 한우판매를 고집하면서 개장부터 지금까지 줄곧 소비자들의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다.



향수한우타운의 성공으로 옥천군은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을 같은 부지에 지으면서 옥천군 명소가 될 수 있었다.

지난해 기준 옥천한우타운에서 판매한 암소는 584마리(거세 255마리, 위탁도축), 금액으로는 76억 원에 달한다. 개점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단 한번도 뒤처짐 없이 성장을 거듭했다.

향수한우타운의 성공은 경종농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옥천군은 한우타운 바로 옆 부지에 2019년 ‘옥천군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점했다.

한우타운을 찾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옥천군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연간 방문객이 50만명을 넘는 명소로 성장했다.

###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지금이 ‘행복’

향수한우타운의 성공 비결과 관련해 한두환 대표는 “모든 사심을 버리고 오직 농가와 한우산업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 대표는 식당 설립 당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면서 출자금에 상관없이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삼았다. 한두 명이 출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버린 상황에서 식당이 성공하게 되면 결국 식당은 전체 농가(조합원)들의 식당이 아닌, 몇몇 사람의 식당으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식당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영농조합법인의 신규 가입 희망하는 농가도 크게 늘었다. 한 대표는 결국 출자금을 많이 낸 농가들의 감자를 설득해 180명의 조합원을 266명까지 늘렸다.



6 향수한우판매장 모습. 평일임에도 찾는 이들이 많다.

7 한우타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인 갈비탕이다. 하루에 소 8~9마리분의 갈비를 손질해 끓인다. 1만5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암소 한우 갈비가 양껏 들어가 있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옥천군 한우협회와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한우협회 발전과 또 우리 회원들을 위해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에 몰두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는 포기했지만,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행복한 지금이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옥천군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준 한우농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 법률 정보 | Life Legal Information

## 주위토지통행권



글. 우양태 변호사

어느 토지와 공로(국도 또는 공공도로)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합니다. 즉 당해 토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로가 없을 경우 그 주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이용하여 출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의 토지 이용방법에 따른 이용범위에서 인정되며 기존 통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변에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야 합니다. 즉 당해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마땅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둘째, 당해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있기는 하나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지적도 등에 도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통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수행

할 수 없어야 인정됩니다.

기존의 통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통로를 개설하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농지의 주위토지통행권 통로 폭은 2m 이내

위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통로의 폭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주변 토지 소유자들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장소와 폭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람이 다닐 정도의 폭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방향과 위치로 지정되어 통로가 개설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농지의 농작물 경작을 위한 통행로로 부득이 타인의 토지를 통행해야 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로의 폭은 1.3m~1.5m(대법원 92다1025호 판결) 내지 2m(대법원 96다10171호 판결)가 필요한 범위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는바, 농지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통로의 폭은 2m 이내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시 통행료

민법 제219조 제2항은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그 주위의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라고(대법원 2013다11669호 판결)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 소유 토지를 이용하더라도(통행로를 개설하는 경우 포함) 통행권자는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 통행에 따른 통행료(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의 임료 상당 금액)를 지급하여 할 것입니다. 위와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인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등기설정을 하거나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에 따른 통로개설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주변 토지 소유자(통로 소유자)는 일정비용을 통행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2

# 10월 한우동향분석

글.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한우사육) 2022년 9월 한우 사육두수 전년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가임암소 두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 한우 사육두수 전년 동월 대비 4.10%, 전월 대비 0.34% 증가
- 가임암소는 전년 동월 대비 4.36%, 전월 대비 0.77% 증가
- 연령별 사육두수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 3.96% 증가, 1세~2세 5.86% 증가, 2세 이상 3.12% 증가

(등급판정) 9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감소

- 1등급 이상 출현율 75.9% 전년 동월 대비 및 전월 대비 증가
- 1++등급 : 26.3%, 1+등급 : 25.4%, 1등급 : 24.2%

(도매 및 산지가격) 9월 한우 도체 평균 도매가격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상승, 큰 소 · 송아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수송아지(4~5개월령) 제외 모두 상승

- 한우 큰 소(600kg) 암소 가격 전년 동월 대비 13.9% 하락, 전월 대비 2.0% 상승
- 한우 암송아지(6~7개월령) 가격 전년 동월 대비 26.1% 하락, 전월 대비 3.0% 상승

(배합사료 · 정액판매)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정액 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

- 9월 배합사료 누적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6.0% 증가
- 9월 정액 누적 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3.6% 감소

(쇠고기 수입) 9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 전월 대비 4.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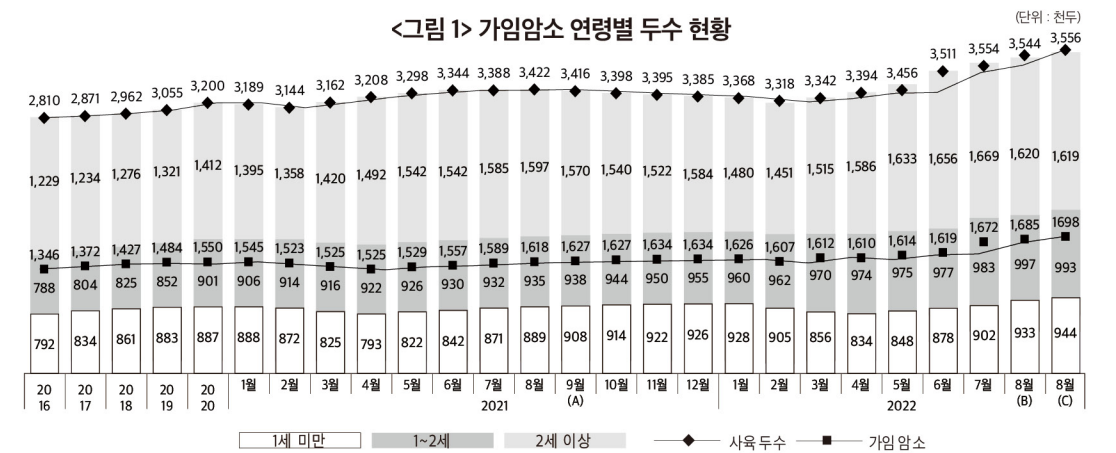
- 무관세 수입 정책에 기인한 수입량 증가, 전월 대비 냉장 · 냉동육 모두 증가세로 전환

## 1. 한우 사육동향

☑ 2022년 9월 한우 사육두수 전년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가임암소 두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한우 수급 안정화 및 가격 하락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암소 자육적 감축 필요

- 한우 사육두수는 355만 6천 두로 전년 동월(341만 6천 두) 대비 4.10%(14만 두) 증가, 전월(355만 6천 두) 대비 0.34%(1만 2천 두) 증가
- 가임암소는 169만 8천 두로 전년 동월(162만 7천 두) 대비 4.36%(7만 1천 두) 증가, 전월(168만 5천 두) 대비 0.77%(1만 3천 두) 증가
- 연령별 사육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은 3.96%(3만 6천 두), 1~2세는 5.86%(5만 5천 두), 2세 이상은 3.12%(4만 9천 두) 증가

<그림 1> 가임암소 연령별 두수 현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소이력관리현황'

- 사육 농장수는 88,471농장으로 전년 동월(89,678농장) 대비 1.35%(1,207농장) 감소, 전월(88,633농장) 대비 0.18%(162농장) 감소
- 농장 당 사육두수는 40.2두로 전년 동월(38.1 두) 대비 5.51%(2.1두) 증가, 전월(40.0두) 대비 0.50%(0.2두) 증가

<표 1> 한우 사육 현황

(단위 : 호, 천두, %, 두)

구분	농장수	사육 두수	가임 암소두수	송아지 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 사육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16	97,498	2,810	1,346	723	792	788	1,229	28.8
2017	94,107	2,871	1,372	784	834	804	1,234	30.5
2018	92,238	2,962	1,427	899	861	825	1,276	32.1
2019	89,616	3,055	1,484	135	883	852	1,321	34.1
2020	88,879	3,200	1,550	55.5	887	901	1,412	36



구분		농장수	사육 두수	가임 암소두수	송아지 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 사육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21	1월	88,933	3,189	1,545	58.2	888	906	1,395	35.9
	2월	88,860	3,144	1,523	65.1	872	914	1,358	35.4
	3월	89,003	3,162	1,525	79.7	825	916	1,420	35.5
	4월	89,295	3,208	1,525	131.5	793	922	1,492	35.9
	5월	89,494	3,298	1,529	142.5	822	926	1,542	36.8
	6월	89,576	3,344	1,557	123.8	842	930	1,571	35.4
	7월	89,617	3,388	1,589	101.7	871	932	1,585	37.8
	8월	89,658	3,422	1,618	88.7	889	935	1,597	38.2
	9월(A)	89,678	3,416	1,627	77.9	908	938	1,570	38.1
	10월	89,645	3,398	1,627	67.2	914	944	1,540	37.9
	11월	89,657	3,395	1,634	62.7	922	950	1,522	37.9
	12월	89,720	3,385	1,634	59.7	926	955	1,504	37.7
2022	1월	89,559	3,368	1,626	61	928	960	1,480	37.6
	2월	89,378	3,318	1,607	58.2	905	962	1,451	37.1
	3월	89,378	3,342	1,612	44.1	856	970	1,515	37.4
	4월	89,343	3,394	1,610	87.7	834	974	1,586	38.0
	5월	89,242	3,456	1,614	89.5	848	975	1,623	38.7
	6월	89,153	3,511	1,639	78.6	878	977	1,656	39.4
	7월(B)	89,016	3,554	1,672	66.5	902	983	1,669	39.9
	8월(C)	88,633	3,544	1,685	46.8	933	991	1,620	40.0
	9월(C)	88,471	3,556	1,698	41.2	944	993	1,619	40.2
증감률	전년동월(C/A)	△1.35	4.10	4.36	△47.11	3.96	5.86	3.12	5.51
	전월(C/B)	△0.18	△0.34	0.77	△11.97	1.18	0.20	△0.06	0.50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 2. 한우 등급판정 동향

### ☑ 9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감소

- 9월 한우 등급판정두수는 61,593두로 전년 동월(83,176두) 대비 25.9%(21,583두) 감소, 전월(109,272두) 대비 25.9%(21,583두) 감소

- 성별비율은 암소 47.4%, 수소 0.9%, 거세우 51.7%

\* 전월대비 : 암소 1.7%p↓, 수소 0.3%p↑, 거세우 3.1%p↓, 거세율 0.5%p↓

〈표 2〉 한우 성별 등급판정두수

(단위 : 두, %)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율
전년누계 (‘21.1.~9월)	590,574	272,058	6,895	311,621	97.8
	100.0	46.1	1.2	52.8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율
금년누계 (‘22.1.~9월)	637,132	303,253	4,863	329,016	98.5
	100.0	47.6	0.8	51.6	
전년동월 (‘21.9월)	83,176	37,564	1,167	44,445	97.4
	100.0	45.2	1.4	53.4	
전월(‘22.8월)	109,272	53,602	675	54,995	98.8
	100.0	49.1	0.6	50.3	
당월(‘22.9월)	61,593	29,197	559	31,837	98.3
	100.0	47.4	0.9	51.7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 9월 한우 등급판정 결과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 75.9%, 전년 동월 대비 1.6%p 증가, 전월 대비 0.7%p 증가

- 9월 1등급 이상 등급별 출현율은 1++등급 26.3%, 1+등급 25.4%, 1등급 24.2%
  -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은 전월(75.9%) 대비 0.7%p↑, 1++등급 0.7p↑, 1+등급 0.0%p-, 1등급 0.0%p-
  - 전년 동월(74.9%)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0%p↑, 1++등급은 1.7%p↑, 1+등급 0.0%p-, 1등급은 0.7%p↓
  - 전년 누계(74.3%)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0.7%p↑, 1++등급은 2.2%p↑, 1+등급은 0.3%p↓, 1등급은 1.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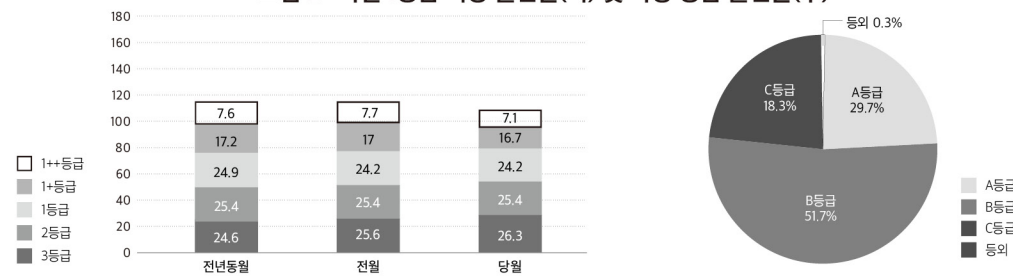
〈표 3〉 한우 등급별 출현율 추이

(단위 : 두, %, %p)

구분		판정두수	육질등급						육량등급			등외
			1++	1+	1	소계	2	3	A	B	C	
2016		737,476	9.6	30.4	29.4	69.3	22.8	7.6	22.9	47.2	29.6	0.2
2017		742,536	10.1	33.3	28.7	72.1	20.3	7.4	21.2	47.1	31.4	0.3
2018		736,354	12.2	30.4	30.4	72.9	19.4	7.3	20.5	47.6	31.7	0.3
2019		765,297	15.7	28.3	29.9	74.0	18.6	7.1	20.7	48.2	30.8	0.3
2020		762,749	22.5	25.5	26.1	74.1	18.2	7.4	25.0	50.5	24.2	0.3
2021		794,238	23.8	25.8	25.3	74.9	17.5	7.3	24.4	52.4	23.0	0.3
2021	9월(A)	83,176	24.6	25.4	24.9	74.9	17.2	7.6	26.2	52.2	21.3	0.3
	1~9월(B)	590,574	23.0	25.7	25.6	74.3	17.9	7.5	24.7	52.2	22.7	0.3
2022	’21.8월(C)	109,272	25.6	25.4	24.2	75.2	17.0	7.7	29.9	51.5	18.4	0.2
	9월(D)	61,593	26.3	25.4	24.2	75.9	16.7	7.1	29.7	51.7	18.3	0.3
	1~9월(E)	637,132	25.2	25.4	24.4	75.0	17.2	7.6	26.8	52.1	20.8	0.2
전월대비(D-C)		△47,679	0.7	0.0	0.0	0.7	△0.3	△0.6	△0.2	0.2	△0.1	0.1
전년동월대비(D-A)		△21,583	1.7	0.0	△0.7	1.0	△0.5	△0.5	3.5	△0.5	△3.0	0.0
전년누계대비(E-B)		46,501	2.2	△0.3	△1.2	0.7	△0.7	0.1	2.1	△0.1	△1.9	△0.1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그림 2〉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좌) 및 육량 등급 출현율(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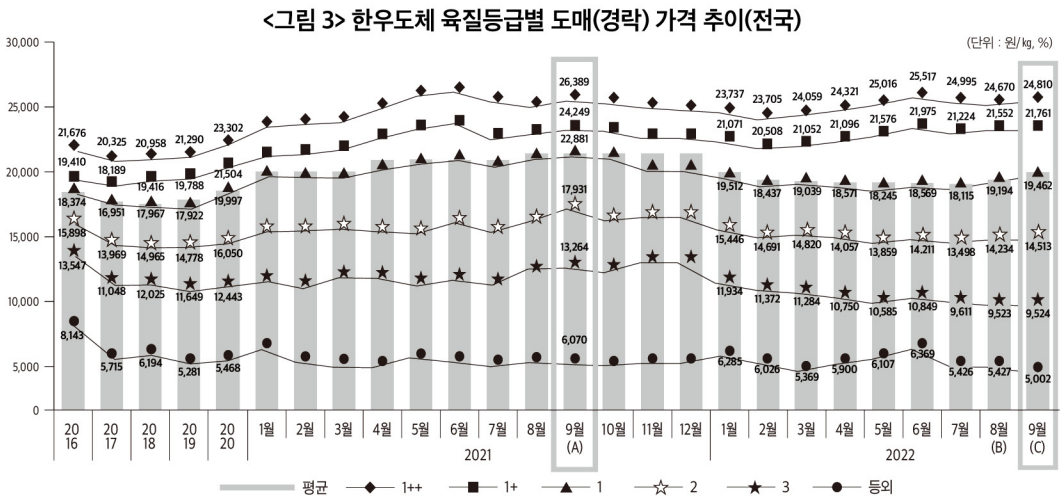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3. 한우 도매 및 산지가격 동향

#### ☒ 9월 한우 평균 도매가격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상승

- 9월 1등급 기준 도매가격(19,462원/kg)은 전년 동월(22,881원/kg) 대비 14.9%(3,419원/kg) 하락, 전월 (19,194원/kg) 대비 1.4%(268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20,053원/kg)은 전년 동월(22,620원/kg) 대비 11.3%(2,567원/kg) 하락, 전월(19,621원/kg) 대비 2.2%(432원/kg) 상승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표 4>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단위 : 원/kg, %)	
구분		1++	1+	1	2	3	등외	평균
2016		21,676	19,410	18,374	15,898	13,547	8,143	18,116
2017		20,325	18,189	16,951	13,969	11,048	5,715	16,719
2018		20,958	19,416	17,967	14,965	12,025	6,194	17,772
2019		21,290	19,788	17,922	14,778	11,649	5,281	17,965
2020		23,302	21,504	19,997	16,050	12,443	5,468	19,891
2021	9월(A)	26,389	24,249	22,881	17,931	13,264	6,070	22,620
2022	8월(B)	24,620	21,552	19,194	14,234	9,523	5,427	19,621
	9월(C)	24,810	21,761	19,462	14,513	9,524	5,002	20,053
증감율	전년동월(C/A)	△6.0	△10.3	△14.9	△19.1	△28.2	△17.6	△11.3
	전월(C/B)	0.8	1.0	1.4	2.0	0.0	△7.8	2.2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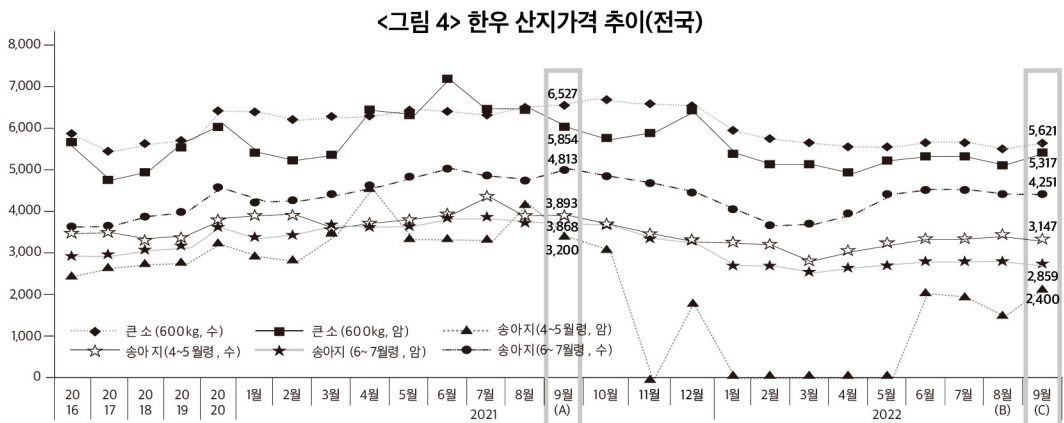
#### ☒ 9월 한우 산지가격 큰 소와 송아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월 대비 모두 상승, 수송아지(4~5개월령)만 하락

- 9월 큰 소(600kg) 산지가격은 암소의 경우 5,621천원으로 전년 동월(6,529천원) 대비 13.9%(908천원) 하락, 전월(5,511천원) 대비 2.0%(110천원) 상승

- 수소의 경우 5,317천원으로 전년 동월(5,854천원) 대비 9.2%(537천원) 하락, 전월(4,801천원) 대비 10.7%(516천원) 상승

- 9월 송아지(6~7개월령) 산지가격은 암송아지의 경우 2,859천원으로 전년 동월(3,868천원) 대비 26.1%(1,009천원) 하락, 전월(2,776천원) 대비 3.0%(83천원) 상승

- 수송아지의 경우 4,251천원으로 전년 동월(4,813천원) 대비 11.7%(562천원) 하락, 전월(4,210천원) 대비 1.0%(41천원) 상승



자료 :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주 : 2020년 송아지(4~5월령)의 경우 3월과 5월은 코로나로 인한 가축시장 임시폐쇄로 가격자료 없음

<표 5> 한우 산지가격 추이							(단위 : 천원, %)
구분		큰소(600kg)		송아지(4~5월령)		송아지(6~7월령)	
		암	수	암	수	암	수
2016		5,816	5,650	2,465	3,485	2,900	3,550
2017		5,406	4,733	2,612	3,444	2,919	3,572
2018		5,599	4,911	2,725	3,272	3,118	3,841
2019		5,646	5,476	2,790	3,394	3,212	3,930
2020		6,114	5,446	3,060	3,711	3,435	4,295
2021	1월	6,372	5,372	2,990	3,877	3,402	4,196
	2월	6,209	5,207	2,880	3,891	3,436	4,263
	3월	6,263	5,348	3,500	3,641	3,594	4,328
	4월	6,322	6,434	4,500	3,597	3,729	4,562
	5월	6,379	6,289	3,350	3,709	3,778	4,785
	6월	6,508	7,159	3,350	3,956	3,849	5,003
	7월	6,369	6,412	3,351	4,342	3,867	4,877
	8월	6,499	6,447	4,185	3,851	3,722	4,710
	9월(A)	6,529	5,854	3,200	3,893	3,868	4,813
2022	1월	6,026	5,370	-	3,329	2,864	3,842
	2월	5,882	5,148	-	3,198	2,862	3,640
	3월	5,701	5,154	-	2,893	2,735	3,683
	4월	5,600	4,967	-	3,048	2,868	4,001
	5월	5,521	5,163	-	3,379	2,907	4,208
	6월	5,753	5,193	2,278	3,547	2,994	4,407
	7월(B)	5,551	5,053	2,050	3,158	2,898	4,266
	8월(C)	5,511	4,801	1,630	3,217	2,776	4,210
	9월(C)	5,621	5,317	2,400	3,147	2,859	4,251
증감율	전년동월(C/A)	△13.9	△9.2	△25.0	△19.2	△26.1	△11.7
	전월(C/B)	2.0	10.7	47.2	△2.2	3.0	1.0

자료 :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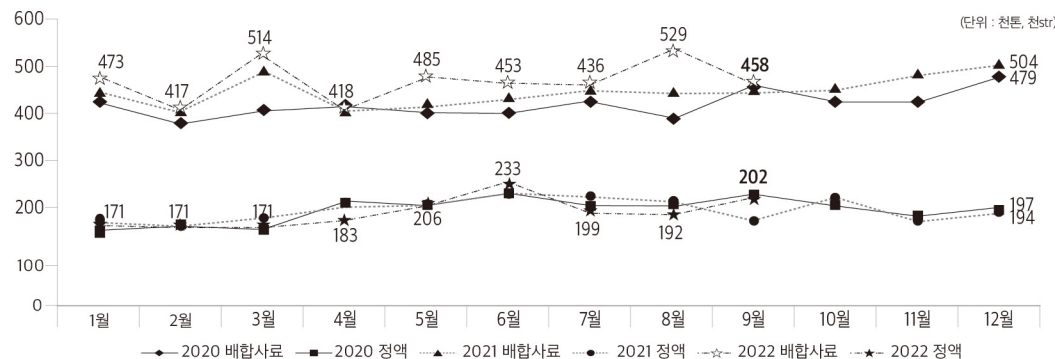


## 4.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정액 판매 동향

☑ 2022년 8월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한우 정액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

- 8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436천 톤(당해년도 누적 생산량 3,725천 톤)으로 전년 동기간(3,497천 톤) 대비 6.5%(228천 톤) 증가
- 8월 한우 정액판매량은 199천 str(당해년도 누적 판매량 1,521천 str)로 전년 동기간(1,624천 str) 대비 5.2%(83천 str) 감소

<그림 5>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표 6>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단위 : 천톤, 천st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배합 사료	2020	426	384	412	414	404	402	427	390	457	428	430	479	5,053
	2021	442	406	490	406	423	435	451	444	451	453	482	504	5,387
	2022	473	417	514	418	485	453	436	529	458				4,183
정액	2020	157	168	155	213	207	231	207	211	227	205	186	194	2,361
	2021	172	162	179	209	209	233	226	214	183	220	170	197	2,374
	2022	171	171	171	183	206	233	199	192	202				1,723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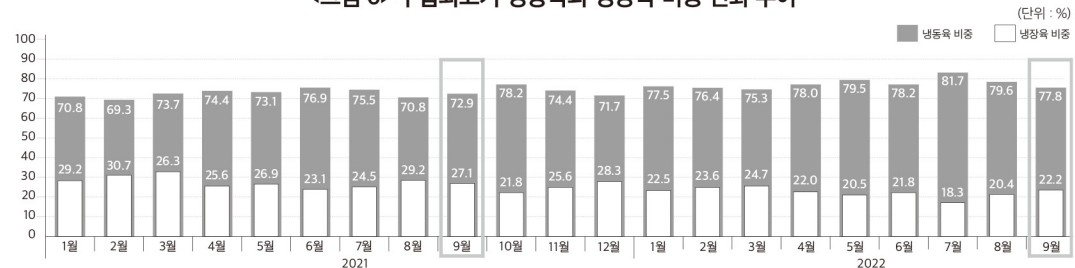
## 5. 쇠고기 수입현황

☑ 2022년 9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13.7%(5,316톤) 증가, 전월 대비 4.7%(1,995톤) 증가

- 9월 쇠고기 수입량은 4만 4,062톤으로 전년 동월 3만 8,746톤 대비 13.7%(5,316톤) 증가, 전월 4만 2,067톤 대비 4.7%(1,995톤) 증가, 무관세 수입 정책 시행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전월 대비 냉동 쇠고기 2.4%(807톤) 증가, 냉장 쇠고기 13.8%(1,188톤)증가
- 9월 부위별 쇠고기 수입물량은 전월 대비 앞다리 10.4%(487톤), 갈비 7.8%(1,096톤), 기타 7.4%(940톤) 증가, 양지 8.0%(514톤), 등심 0.3%(14톤) 감소

- 9월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미국산이 10.8%(2,336톤) 증가, 호주산이 2.5%(416톤) 감소, 기타 국가에서 1.8%(75톤) 증가

<그림 6> 수입쇠고기 냉동육과 냉장육 비중 변화 추이



자료 : 수입축산물 부위별 검사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표 7> 쇠고기 수입 추이

(단위 : 톤, %)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15		297,265	245,952	51,313	115,460	38,582	31,404	42,826	68,993	112,431	164,063	20,771
2016		361,531	301,219	60,312	133,197	35,049	45,295	50,001	97,989	153,181	177,530	30,820
2017		344,271	265,665	78,606	142,659	37,517	42,648	39,031	82,416	168,502	149,935	25,834
2018		415,685	326,531	89,154	151,933	53,737	54,270	55,595	100,150	219,769	167,454	28,462
2019		426,626	339,240	87,386	164,792	57,444	53,881	49,849	100,660	237,624	163,158	25,844
2020		419,469	321,646	97,823	161,018	54,616	54,937	44,522	104,376	228,686	158,293	32,490
2021	1월	34,626	24,503	10,123	11,799	5,164	4,810	3,112	9,741	17,111	14,676	2,839
	2월	26,774	18,547	8,227	10,308	4,057	3,688	2,263	6,458	18,797	5,585	2,392
	3월	41,272	30,406	10,866	13,090	7,874	5,548	4,256	10,504	21,154	16,657	3,461
	4월	37,495	27,888	9,607	13,334	5,640	4,848	3,744	9,929	20,470	13,298	3,727
	5월	39,815	29,116	10,699	12,337	5,640	5,240	4,426	12,172	20,794	16,220	2,801
	6월	36,991	28,430	8,562	12,020	5,384	4,740	3,642	11,205	23,288	11,009	2,694
	7월	38,455	29,032	9,423	13,073	3,978	5,279	2,681	13,444	21,096	14,516	2,843
	8월	37,402	26,487	10,915	14,018	4,247	4,930	4,146	10,061	24,686	9,681	3,035
	9월(A)	38,746	28,247	10,499	12,976	4,919	5,486	5,043	10,322	22,435	13,205	3,106
	10월	42,494	33,249	9,244	15,505	5,723	5,488	5,144	10,634	24,630	13,952	3,912
	11월	39,704	29,544	10,161	12,394	6,475	5,737	4,630	10,468	18,309	17,846	3,549
	12월	39,018	27,963	11,055	12,627	6,230	4,831	3,861	11,469	22,104	13,472	3,442
	누계	452,792	333,412	119,381	153,481	65,331	60,625	46,948	126,407	254,874	160,117	37,801
2022	1월	39,218	30,375	8,843	12,121	7,403	5,285	3,964	10,445	15,987	17,969	5,262
	2월	34,349	26,232	8,117	13,150	6,485	4,737	2,640	7,337	22,977	8,291	3,081
	3월	39,926	30,050	9,876	14,508	8,339	4,291	3,412	9,376	23,943	11,821	4,162
	4월	36,355	28,367	7,988	14,449	7,439	4,073	2,940	7,454	21,141	9,854	5,360
	5월	44,669	35,532	9,137	16,877	9,480	4,641	3,490	10,181	24,545	13,732	6,392
	6월	37,607	29,390	8,217	15,550	6,572	3,715	3,192	8,578	20,800	11,886	4,921
	7월	43,249	35,349	7,900	16,485	7,127	4,039	3,724	11,874	23,725	14,837	4,687
	8월	42,067	33,486	8,581	14,041	6,418	4,681	4,186	12,741	21,558	16,452	4,057
	9월(B)	44,062	34,293	9,769	15,137	5,904	5,168	4,172	13,681	23,894	16,036	4,132
	누계	361,502	283,074	78,428	132,318	65,167	40,630	31,720	91,667	198,570	120,878	42,054
증감률 전년동기(B/A)		13.7	21.4	△7.0	16.7	20.0	△5.8	△17.3	32.5	6.5	21.4	33.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축산물 검사실적 순기보고'





## 뉴질랜드 ‘소 트림세’ 도입안, 농가 맹반발

- 뉴질랜드(NZ)의 아던 총리는 11일, 온실가스인 메탄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와 양을 사육하는 농가에 과세하는 법안을 제출할 방침을 밝힘. 이에 농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일고 있음
- 2023년 총선을 앞두고 아던 총리가 이끄는 집권 노동당 지지율이 제1야당을 밀도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축이 내는 트림, 방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농가에 과세하는 세계 최초의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표명
- 과세액은 사육하는 가축 마리수와 농장 규모, 사용하는 비료의 종류,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여부 등에 따라 결정
- 뉴질랜드에서는 소 마리수는 인구의 2배, 양 마리수로는 5배 이상을 차지
- 가축은 이 나라의 대규모 낙농이나 식육업계를 지탱하는 골격이지만, 그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국가 배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메탄은 반추 동물이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가 하면, 사료 목초에 합성 질소비료를 사용하는 것으로도 발생

● 아던 총리의 계획은 2025년 과세 제도를 도입, 세수는 모두 가축에 의한 메탄 배출량 감축에 고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와 보조금에 충당될 것이라고 함

○ 아던 총리는 또 육류나 유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질 제로에 가까워지면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생각할 수 있는 한 이상적인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

○ 아던 총리의 열의와는 대조적으로 뉴질랜드 농민들로부터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음

○ 2022년 네덜란드 정부가 메탄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축 수를 줄이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는 농민들의 격렬한 항의운동이 벌어진바 있음

● 뉴질랜드에서는 20여년 전에도 클라크 당시 총리가 이끄는 정권이 가축의 메탄 배출량에 따라 농가에 과세하는 방안을 승인하였으나, 반대세력으로부터 방귀세로 불리며 항의하는 트랙터가 의회 앞에 집결하는 사태에 이르러 폐안되었음

○ 뉴질랜드 북섬 호크스베이 지역에서 크러기 레인지 쉽 데일리 농장을 운영하는 제임스 클레어몬트 씨는, “기름 값과 농업 생산비용이 크게 치솟는 지금, 아던 총리가 메탄 배출량 감축에 저돌 맹진하면 20년 전과 같은 항의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

○ 아울러 “현재 상황은 매우 어렵다”며 “뉴질랜드 농가들은 오래전부터 수자원 관리에서 큰 압력을 받거나 탄소 포착을 위해 농지를 임업기업에 되파는 조치에 농락당하고 있음

- 이에 더해 이번 메탄 과세안이 불거진 만큼 클레어몬

트 씨는 업계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 “출구 없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강조

● 앤드루 호가드 뉴질랜드 농민연맹 회장은 메탄 과세안에 따라 농가는 마침내 농지를 임업기업에 매각할 수밖에 없게 돼, 뉴질랜드의 시골마을은 허리를 도려내고 말 것이라고 우려

○ “그런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계획은 농가가 농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하지만 지금은 농장 매각이 점점 진행돼 작업용 픽업트럭 집칸에 올라타도 (소나 양을 감시하는)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형국이다”

○ 뉴질랜드 유업 최대 기업인 폰테라는 농지를 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농가가 매각을 결정하면 그 수익을 직접 받을 수 있어 지지해 왔음  
- 그러나 메탄 과세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세액을 어떻게 정할지를 포함해 상당한 우려를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폰테라는 소의 위에서 소화시 메탄을 발생시키는 나쁜 미생물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료첨가물 카우부차(Kowbucha)를 개발하고 있음

자료 : The Financial Times (22.10.12.)

## 미국 곡물협회, ‘곡물수급 긴박 해소되기 어려워’

● 미국 곡물협회(U.S. GRAINS COUNCIL)의 라이언 르그랑(Ryan LeGrand) 회장은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은 재개됐지만 매우 느린 속도로 이전의 25% 정도에 그친다”고 지적

○ 세계적인 수급 차질이 해소되지 않아 곡물 가격은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전망

○ 협회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 전 우크라이나산 곡물은 세계 수출용 옥수수의 14%, 밀의 15%를 차지했음

- 러시아 침공으로 정체됐던 우크라이나산 수출은 8월 재개됐지만 대폭 제한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음

- 르그랑 씨는 수출 허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달려 있어 당분간 가격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

● 미국 등의 공급에 대해서도 르그랑 씨는 가뭄과 고온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생산량이 줄어든 것 같다고 전망

○ 한편, 수요는 강세로, 곡물 최대 소비국인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대책 영향 등으로 저조하지만 곡물 수요 감퇴 조짐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 르그랑 씨는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 식량이 필요하며 사료용 곡물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

● 수급 차질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상승, 2년 전보다 70% 이상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음

○ 르그랑 씨는 에너지와 비료 가격 급등으로 생산 비용도 오르고 있다며 현재 가격은 곡물 생산 농가로서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주장

자료 : 일본경제신문(22.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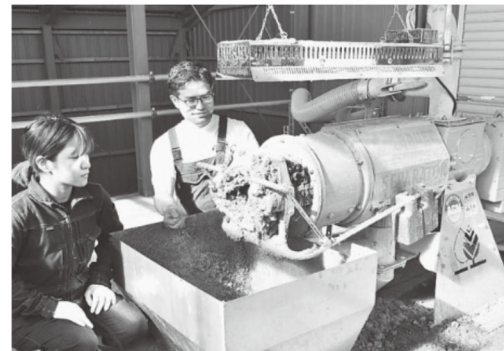




## 일본 온실가스 감축 인증, 가축 분뇨관리 첫 사례

- 감축한 온실가스 양을 국가가 인증하는 'J-크레딧 제도'로, 홋카이도(北海道) 나카시베쓰초(中標津町)의 목장 '팜 노트데일리 플랫폼'이 일본 최초로, '가축분뇨 관리 방법 변경'으로 등록
- 가축분뇨 관리방법을 '저류(貯留)'에서 '강제 발효'로 바꾸는 것으로 연간 175톤 상당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 발효된 가축분뇨는 소의 깔짚으로 재사용 가능, 일본 국내 농림수산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효과 가스의 약 10%는 가축 배설물 유래
- 이번 탄소감축을 실시하는 목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슬러리)는 약 3,100톤으로, 슬러리는 지금까지 저장 후 목초지에 살포하였음
- 탄소감축 과정을 보면, 우선 슬러리의 고체 분과 액체를 분리, 고체 분은 호기성 강제발효를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인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의 배출을 억제함
- 고체 분의 12일 후 발효온도는 약 60도까지 올라가면서, 잡초 등의 종자는 불활성화되고 대장균 등 병원균은 사멸한다. 이 때문에, 깔짚으로서의 이용 가치도 높아짐
- 액체 분은 종전대로 저장한 후 살포하는데, 해외에 특별 주문한 기계를 도입하여 사용함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장치



농업분야 J-크레딧 제도의 대상이 되는 활동

탄소감축 활동	등록사례 여부
바이오차(Biochar)의 농지살포	있 음
가축분뇨 관리방법의 변경	있 음
소 및 돼지 등에 아미노산 균형 개선사료 급여	없 음
차밭에 초화(硝化)억제제 함유 비료 등의 시비	없 음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 이 제도의 등록에는, 배출량 산정이나 'J-크레딧' 신청, 판매 등에 정통한 대기업 종합 상사 '마루베니(丸紅)'가 협력함
- 동 목장은 마을 내 낙농가, 사사키 다이스케씨가 경영하는 농장의 유허 시설도 재이용하여 젖소 170마리를 사육, 연간 1,400톤의 원유를 출하
- 동 목장의 목장사업을 총괄하는 수의사 히라 이사오씨는 "축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이라고 하는 사회공헌에 더해, 가격이 상승하는 깔짚의 대체 성과도 있다"고 강조

자료 : 일본농업신문(22.10.17.)

## 일본정부, 사료 국산화 및 볏짚 광역유통 지원 검토



- 일본 노무라 테츠로(野村哲郎) 농림수산성 장관은 11일의 내각회의 후 회견에서, 정부가 월내에 책정하는 종합경제대책을 둘러싸고, 국산 사료나 퇴비의 이용 확대 등 '구조를 바꾸는' 것을 중시할 생각을 표명
- 사료나 비료의 급등 대책은 이미 마련했다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강조, 볏짚의 광역유통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음을 발표
- 종합경제대책을 둘러싸고, 키시다 후미오 수상이 10일, 방문 중의 카고시마현 키리시마시에서 기본구상을 밝힘
- 종합경제대책 축산분야에서는 ①벼농사와 축산농가가 제휴한 국산 사료의 공급·이용 확대, ②축산농가와 비료업체, 경종농가가 제휴한 퇴비 등의 비료 이용 확대, ③쇠고기 수출을 위한 고도의 위생 관리 시설 정비를 지원할 방침을 표명
- 노무라 장관은 회견에서, 국산 사료의 이용 확대와 관련해, 볏짚의 광역 유통의 필요성을 언급
  - 수요가 왕성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있는 한편, 공급력이 있지만 사료 이용이 적은 지역이 있어, 양 지역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재차 지적
  - 두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수송비용, 압축과 보관 장소 확보 등이 과제라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퇴비 등의 이용 확대를 둘러싸고 농림수산성은, 2021년도 추경 예산으로 마련한 '축산 환경대책 종합 지원사업'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
- 이 사업은 축산농가가 경종농가와 제조업체 등과 협의회를 구성해 퇴비의 광역 유통 등에 나설 때 지원을 강구하게 됨
- 쇠고기 위생관리시설 정비에 대해, 농림수산 장관은 회견에서 현재도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경제대책 중에서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설명

자료 : 일본농업신문(22.10.12.)



### J-크레딧 제도

-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 삭감량을 국가가 인증해, 사업자 사이에 매매하는 제도
- 농수, 경제산업, 환경 3성이 운영
- 농업분야에서는 4가지 활동이 대상, 이번 사례를 포함해 2 종류의 등록사례가 있음



## 일본 축산기업, 소고기 맛을 성분 분석으로 시각화

- ④ 일본 '토리야마축산식품(鳥山畜産食品 ; 군마현)'은 소고기의 맛 성분을 측정해 맛의 '시각화'를 추진
  - '아카기 우(赤城牛)'등의 브랜드로 소고기를 판매하는 '토리야마축산식품(군마현 시부카와시(群馬県渋川市))'은, 업계에서 일반적인 'A5'라고 하는 고기의 등급 매김을 부정, 소고기 성분을 분석 장치로 측정해, 맛의 '시각화' 실현에 노력
    - 일본에서 소고기 등급은 한 마리의 소에서 나는 고기의 양을 나타내는 A, B, C의 수율 등급과 사시(지방교잡)의 들어가는 방법, 색깔과 광택 등에 따른 15단계의 육질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A5가 최고 등급
  - 그러나 토리야마 마코토(鳥山真) 사장은 이 등급을 '고기의 외형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이라고 부정
    - 고기의 지방산의 조성이나 붉은 살코기의 맛을 분석 장치로 측정함으로써, '감칠맛 나는 고기', '담백한 고기'라고 하는 고객 요구에 맞춘 고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함

맛의 시각화를 위해 소고기 성분을 측정



자료 : 일본경제신문(22.10.11.)

## 일본 와규 올림픽 폐회, 최고상은 카고시마와 미야자키

- ④ 카고시마현(鹿児島県)에서 열린 와규 품평회 제12회 전국와규능력공진회(全国和牛能力共進会)는 마지막 날인 10일, 최고상인 내각총리대신상을 발표하고 5년에 한 번 개최되는 와규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대회는 폐회
  - 몸매와 털이 좋은 것을 평가하는 '종우의 부(種牛部)'는 카고시마현(鹿児島県) 대표, 육질을 심사하는 '육우의 부(肉牛部)'는 미야자키현(宮崎県) 대표가 각각 뽑힘
    - 종우의 부 총리상은 제4 출품구(번식암소군(群)), 출품우는 '야스코(やすこ)', '테루하나(てるはな)', '사끼(さき)' 3두
    - 육우의 부 총리상은 제7 출품구(지방의 질 평가군(群)), 출품우는 '쇼에이(尚栄)', '미토(弥土)52의3', '제33린타로(凛太郎)' 3두
  - 수상한 카고시마현 대표 후지야마 스이(藤山粹)씨는 "9일이 결혼기념일이었다. 아내에게 최고의 선

'종우의 부'로 내각총리대신상에 선정된  
카고시마현 대표와 와규



물을 줄 수 있었다"며 기뻐했으며, 미야자키현 대표 참가자는 "이번 소에게 감사, 앞으로도 미야자키 소는 맛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고기를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피력

- ④ 카고시마현 기리시마시(霧島市)에서 열린 폐회식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와규의 매력과 생산성이 향상돼 다음 세대에 계승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
  - 카고시마현 시오타 코이치(塩田康一) 지사는 종료 후, 전체 9개 출품구 중 6개 출품구를 카고시마가 제압한 것에 "불만 없이 와규 일본 제일. 뛰어난 흑우의 매력을 PR하고 싶다"라고 자랑
- ④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인 41개 도부현(道府県)에서 438마리가 출품되었으며, 관람객은 5일 만에 30만 명을 넘어섬, 다음 대회는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열릴 예정

제12회 전국와규능력공진회에서  
내각총리대신상을 수여하는 기시다 총리



자료 : 농업협동조합신문(22.10.17.), 일본경제신문(22.10.10.),



매주 수요일은 축산환경개선의 날

# 깨끗한 축산환경

우리 스스로 만드는 '깨끗한 축산농장'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사 청결 및 소독작업 실시  
**미세먼지 저감! 축산환경 개선!**



철저한 차단방역  
축사 및 토비사 상시 관리  
우리 스스로  
환경개선!

일제소독/자체 방역  
가축질병 예방



출입기록 작성 및  
차단방역 자가진단



축사 가축분뇨 처리  
퇴액비부숙 관리



개인 위생 소독 실천  
축사내 청결 점검



전국한우협회

카드뉴스로 알아보는 한우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 한우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오해

축산 VS 운송수단 온실가스 배출량

① 계산법 기준이 다릅니다

축 산 "생애주기 전 과정"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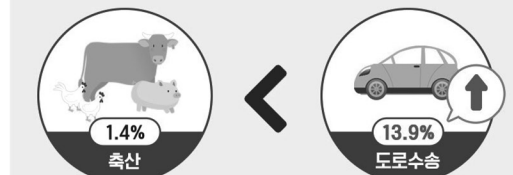
운송수단 "제조를 제외한 연료의 양"만 계산



2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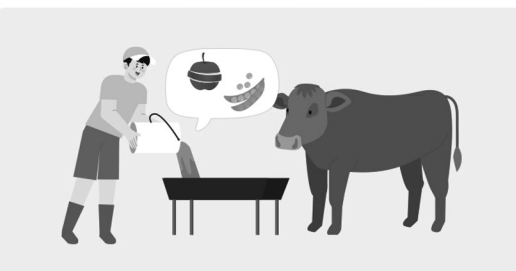
동일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한다면?



세계 공통보고 방법에 의해 계산하면!

①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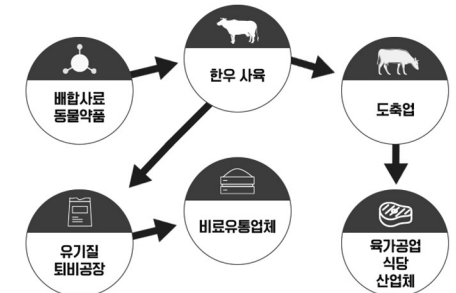


그리고 한우는 농업부산물이나 대두박을  
사료로 먹음으로써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을 개선해  
추가적인 온실가스 발생을 막습니다!

4

한우산업이 사라지면  
다른 산업에 피해를 끼쳐요!

한우는 여러 산업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5

한우 부산물 어떻게 이용될까?

<b>털</b> 에어필터, 브러쉬, 벨트, 천, 단열재, 깃스	<b>지방</b> 검, 의약품, 화장품 양초, 크레용, 세제, 섬유유연제, 향수	<b>피</b> 파스타, 염료, 접착제, 의약품	<b>분뇨</b> 비료, 토양개선탄, 신재생에너지
<b>뼈</b> 정제설탕, 유리	<b>뿔, 발굽</b> 접착제, 깃스, 사진인화기	<b>가죽</b> 젤라틴, 캔디, 조미료(향료), 의약품, 벽지, 접착제	<b>내장</b> 약기름, 테니스 라켓 줄,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6

한우에 대한 편견은 NO!  
환경과 한우, 함께 합니다



\*출처: 강원대학교(연구책임자 박규현 교수), 2022년  
「전과정 측면에서 한우의 환경적·산업적 특징 연구」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한우마당

전국한우협회 회원 소식지 「한우마당」은 매달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한우마당」 대한민국 전체 한우 사육두수 약 70%에 달하는 협회 회원과  
전후방업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연간 15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양질의 정보는 물론, 축산관련 잡지 중  
가장 많은 구독부수로 높은 전파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 광고문의

- 1) 광고 문의 및 접수: 025251053@daum.net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월간 한우마당」 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참고)
- 2) 광고규격: 188mm×257mm / 내부여백 7~10mm 필요
- 3) 광고금액: 홍보팀 문의 (장기계약 우대)  
\* 「한우마당」 광고업체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홍보관 메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 주요 배부처 및 일정

- 1) 협회 대의원 및 임원 등 지도자, 전국 지회·지부, 일반 회원농가
- 2)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국 각 지자체 축산과
- 3) 전국 수의대학 및 동물생명, 축산학과, 특성화 대학 등
- 4) 전국 농축협 및 관련 유관기관, 한우협동조합, 전문지 언론사
- 5) 사료 기자재 등 한우마당 광고업체

매월 20일

원고 및 광고시안 마감



전국한우협회



2022. 11  
vol. 192

## 구독안내

「한우마당」은 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전국한우협회 홍보팀으로  
문의주십시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 02-525-1053, 내선 202 또는 218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https://www.ihanwoo.org>

한우마당 뉴스 웹진

<http://www.ihanwoo.kr>

제 23권 제11호(통권 192호)

2022년 11월 15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삼주

편집 김재광

광고 이기찬

제작 팜커뮤니케이션

발송 지산포스트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2층

전화 02.525.1053 / 02.597.2377

팩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인터넷 한우마당 [www.ihanwoo.kr](http://www.ihanwoo.kr)

한우협회 누리집 [www.ihanwoo.org](http://www.ihanwoo.org)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전국한우협회